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3.1 독립 정신의 계승 -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일시 : 2018. 7. 29.(일) 14:00

장소 :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3층

주최, 주관 :  시흥시,  시흥문화원

후원 :  시흥시의회,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주)성담

협력 : 독립기념관 연구소, 시흥향토문화연구소

2018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3.1 독립 정신의 계승

- 시흥 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

2018. 7. 29.

 시 흥 문 화 원

인 사 글

2019년은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흥문화원은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 독립 정신의 계승을 생각하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시흥 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만세운동, 오늘에 시행하고 있는 선양사업을 돌아보는 자리로서, 선조들이 당한 고통과 흘린 피를 기억하며,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던 삼일 운동과 그 정신을 오늘에 기리고자 합니다.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시흥시는 지난 7월20일, 시흥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으로 죽을동 김천복 지사 기념비 제막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기념비 제작 및 선양 사업은 선조들이 지키고자 한 이 강토와 선조들이 지켜온 독립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와 발 맞추어 제27회 연성문화제를 주최하는 시흥문화원이 ‘3·1 독립 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제8차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를 문화제와 함께 개최합니다. 시흥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살피고 시민들이 민족정신과 역사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입니다.

기조 강연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에서 근무할 당시, 일본이 가로챈 재산을 권리보전 조치하여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국유화하는데 애쓴 결과로 1998년8월15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윤태용 선생을 모셔 <일본인 등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라는 주제로 일본인이 가로챈 우리의 강토와 재산을 대한민국 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한 과정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침 소재초등학교 출신이어서 시흥지역의 독립운동사가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젊은 시절에 시흥군의 3·1 독립운동을 소재로 석사 논문을 발표한 김형목

독립기념관 사적팀장의 <시흥시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의 발표와, 능곡동에서 오랜 세월 교육사업을 펼치고 현재는 시흥효도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규성 선생의 <권희 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 독립만세운동> 발표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향토사학자 심우일 선생의 <시흥지역 3·1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를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시흥문화원은 시흥시민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3.1 독립정신을 지속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와 인문학적 문화입국에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제8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가 향토애와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세미나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9일

축 사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문화원의 제8차 지역문화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시 지역 정신문화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정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다가오는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자 송고한 정신인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위대했던 우리의 역사와 선열들의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뜻 깊고, 의미있는 시기에 3.1 운동 관련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애국지사에게 대한 뜻을 이어받는 자리이며, 우리 지역의 뜨겁고 송고했던 수암면 비석거리, 군자면 거모리, 군자면 장현리 만세운동과 애국지사분들께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번 3.1 운동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더욱 기리고, 계승하여 지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8차 지역문화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흥시도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계승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7. 29.

축 사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김태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세미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3.1 독립 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던 그 날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듯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일은 지금의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시흥지역문화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매우 유의미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문화원이 보다 활발한 활동들로 시흥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현상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흥시의회 또한 우리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 맞춰 더욱 발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열리고 있는 제27회 연성문화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11

3·1 독립 정신의 계승

- 제8차 지역문화 세미나 일정 -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등 사회 : 안준상(시흥문화원 감사)
14:20~14:40	기조강연 주제 : 일본인 등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발표자 : 윤태용(세무법인 해오름 대표 세무사)
14:40~15:40 (발표 : 각 20분)	주제 발표 1.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발표자 : 김형목(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2. 권희(權禧)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 독립만세운동 발표자 : 김규성((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장) 3. 시흥지역 3.1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 발표자 : 심우일(명문고등학교 교감)
15:40~15:50	휴식 및 장내 정리
15:50~17:00	종합 토론 좌장 : 정원철(시흥문화원장) 논평자: 김치성(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도진태(시흥문화원 이사) 이재만(시흥문화원 이사)

- ♣ 일시 : 2018. 7. 29.(일) 14:00 ~ 17:00
- ♣ 장소 :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3층
- ♣ 주최, 주관 : 시흥시, 시흥문화원
- ♣ 후원 : 시흥시의회,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주)성담
- ♣ 협력 : 독립기념관 연구소, 시흥향토문화연구소

목 차

기조강연

- ※ 일본인 등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윤태용 / 11

주제 발표

1.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 김형목 / 33
- 논평 / 김치성 / 59
2. 권희(權禧)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 독립만세운동 / 김규성 / 67
- 논평 / 도진태 / 115
3. 시흥지역 3.1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 / 심우일 / 121
- 논평 / 이재만 / 135

기조 강연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의 권리보전
조치(權利保全措置)

윤태용
(세무법인 해오름 대표 세무사)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의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

윤태용¹⁾

■ 목차

- I. 서설(序說)
- II.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 관리의 변천(變遷)
- III.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의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 추진(推進)
- IV.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의
국가귀속(國家歸屬)
- V. 결어(結語)

I. 서설(序說)

우리나라는 일제(日帝)의 침략(侵略)과 광복(光復), 6·25전쟁(戰爭)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토지대장(土地臺帳) 등 재산관련 공부(公簿)가 멸실(滅失)되고,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재산이 (무단)無斷으로 점유(占有)되는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방(解放)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국유부동산 관련 특별법(特別法)과 특례매각제도(特例賣却制度) 등을 시행하여 재산관련 공부(公簿)의 정비와 무단점유(無斷占有) 상태의 해소(解消)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국가로 등기되지 않은 재산과 무단점유(無斷占有)되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1) 세무법인 해오름 대표 세무사.

또한 국유재산 관리기관(管理機關)<특히 일반재산(一般財産)>이 미군정청(1945년), 관재청(1950년), 국세청(1966년), 지방자치단체(1977년) 등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조직(인원)과 예산지원이 미흡(未洽)하여 재산관리(財産管理) 공부(公簿)의 멸실(滅失)과 관리부실(管理不實), 무단점유(無斷占有)의 방치(放置), 많은 재산을 무차별 처분(處分)하는 등 국유재산관리의 취약성(脆弱性)이 노출되었다.

이에 국유재산 보존(保存)의 필요성을 인식(認識)하고 1976.12.31. 국유재산법을 전면개정(全面改正)하여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國有財産管理處分計劃)을 매년 수립(樹立)·시행(施行)하였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친 국유재산 실태조사(實態調査)와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지속적(持續的)인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가 요구되고 있다.

※ 2011년부터는 국유재산의 중·장기정책방향(中·長期政策方向)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國有財産綜合計劃)」 제도를 도입(導入)하여 매년 국무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대통령 승인(承認)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開始)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II.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 관리의 변천(變遷)

1. 일제(日帝)의 토지 수탈(收奪) 정책(政策)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제(國有制)가 원칙으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넘겨준 데 불과하며, 또 경작권(耕作權)은 농민이 가지고 있어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所有關係)가 없었다.

따라서 1910년 조선(朝鮮)의 국권(國權)을 피탈(被奪)한 일제(日帝)는 조

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토지조사국(土地調查局)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법(土地調查法)」을 제정한 데 이어 다시 1912년 8월 13일 제령(制令) 제2호로 「토지조사령(土地調查令)」을 공포(公布)하여 토지를 가진 자(者)는 일정한 기간 내에 토지를 신고(申告)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민족적 감정(感情)과 신고 과정(過程)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신고(申告)를 기피(忌避)하였고, 신고(申告)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몰수(沒收)하여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小作農)으로 전락하여 고율(高率)의 소작료(小作料)에 시달리는 영세농민으로 착취(搾取)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민족적 비극(悲劇)을 맞게 된 반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민전(民田)·공전(公田) 등의 몰수(沒收)로 전국토(全國土)의 40%에 해당하는 논·밭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大地主)가 되었다. 일제는 이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에 넘겼고, 다시 조선(朝鮮)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하여 일본인 지주(地主)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지세(地稅)의 공정한 부과(賦課)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所有權) 확립(確立)을 명분(名分)으로 1918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查事業)은 지세(地稅) 수입(收入)을 늘려 식민(植民) 지배(支配)에 필요한 재정(財政)을 확보(確保)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소유지(所有地)를 증가(增加)시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었다.

2. 해방(解放)이후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의 관리(管理)·처분(處分)

가. 미군정청(美軍政廳)의 관리(管理)·처분(處分) (1945~1948)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敗亡)하고 우리나라가 해방(解放)되었으나 1945년 9월 8일 미군(美軍)이 상륙하여 군정(軍政)을 실시하면서 1945년 9월 25일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 제2호」 '패전국(敗戰國) 소속 귀속재산(歸屬財産)의 동결(凍結)과 이전(移轉) 금지에 관한 건(件)'을 공포하여 1945년 8

월 9일 이후 일본정부(日本政府), 그 기관(機關) 또는 일본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처분(處分)을 금지(禁止)하였다.

그리고 1945년 12월 6일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 제33호」 ‘조선(朝鮮) 내(內) 소재 일본인 재산취득(財産取得)에 관한 건(件)’을 공포하여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일본정부(日本政府), 그 기관(機關) 또는 그의 국민(國民)·회사(會社)·단체(團體)·조합(組合) 및 그 정부(政府)의 기타 기관(機關) 또는 그 정부(政府)가 조직(組織)·취체(取締)한 단체(團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그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소유 내지(乃至) 관리하는 전종류(全種類)의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소유권(所有權)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朝鮮)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취득(取得)하고 그 재산 전부(全部)를 소유한다"고 규정해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그 수입(收入)을 “적산(敵産)”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몰수(沒收)하여 귀속재산(歸屬財産)과 귀속농지(歸屬農地)로 구분하여 관리(管理)·처분(處分)하였다.

나.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의 관리(管理)·처분(處分) (1948 ~ 1964)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가 수립(樹立)됨에 따라 1948년 9월 11일 「한·미간(韓·美間) 재정(財政) 및 재산(財産)에 관한 최초협정(最初協定)」(1948.09.20 효력발생)을 체결(締結)하여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을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에 이양(移讓)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는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 증진을 위하여 1949년 6월 21일 제정(制定)된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1994. 12. 22. 「농지법(農地法)」 제정으로 폐지(廢止)>에 의거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농지(歸屬農地)와 소유자가 직접 경작(耕作)하지 않는 농지(소작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정부(政府)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有償取得)하여 농민에게 분배(分配)해 주고(3정보로 제한),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政府)에 연부(年賦)로 상환(償還)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有償沒收)·유상분배(有償分配)의 농지개혁(農地改革)을 실시하였으며, 1968년 3월

13일 제정된 「농지개혁사업정리(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정부(政府)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 당시 분배(分配)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화(國有化) 조치(措置)하도록 하였다.

또한, 1949년 12월 19일 「귀속재산처리법(歸屬財産處理法)」을 제정하여 공공성(公共性)이 있거나 영구보존(永久保存)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은 국유(國有)·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지정하여 등록(登錄) 관리(管理)하고, 그 외의 재산은 산업부흥(産業復興)과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안정(安定)을 도모(圖謀)하기 위하여 매각(賣却)하였으며, 1963년 5월 29일 제정 공포된 「귀속재산처리(歸屬財産處理)에 관(關)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부칙(附則) 제5조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賣買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歸屬財産)과 1964년 12월말일 까지 매매계약(賣買契約)이 체결된 귀속재산(歸屬財産)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賣買契約)이 해제된 귀속재산(歸屬財産)은 무상(無償)으로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도록 하였다.

3. 국가귀속(國家歸屬) 청산법인(清算法人)의 청산업무(清算業務)

가. 청산업무(清算業務)의 개념(概念)

1948년 9월 11일 체결한 「한·미간(韓·美間) 재정(財政) 및 재산(財産)에 관한 최초협정(最初協定)」에 따라 미군정청(美軍政廳)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가 이양(移讓)받은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 중 국가에 귀속된 주식(株式) 또는 지분(持分)이 100%인 법인의 경우 존속가치(存續價値)가 있는 법인은 국가가 관리(管理)·운영(運營)하거나 기업체(企業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각(賣却)하였으며, 존속가치(存續價値)가 없는 법인 소유재산(所有財産)은 분할(分割)하여 매각(賣却)하였다.

또한, 국가에 귀속된 주식(株式) 또는 지분(持分)이 1/2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株式) 또는 지분(持分)을 민간(民間) 주주(株主), 사원(社員), 조합원(組合員) 등에게 우선 매각(賣却)하였으며, 주식(株式) 또는 지분

(持分)이 1/2 이상인 법인으로 기능(技能)이 사실상 소멸(消滅)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귀속청산(휴면)법인(歸屬清算(休眠)法人)으로 지정(指定)하고 국가가 당해 법인의 해산(解散)을 결정하면 청산인(清算人)을 선임하여 법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處分)한 후 청산익금(清算益金)을 주주(株主) 등에게 분배(分配)하였는 바, 귀속법인(歸屬法人)을 해산(解散)하고 주주(株主) 등에게 청산익금(清算益金)을 분배(分配)하는 과정의 업무를 청산업무(清算業務)라 한다.

나. 청산업무(清算業務)의 수행(遂行) 연혁(沿革)

청산업무(清算業務)는 「귀속재산처리법(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歸屬財産處理)에 관(關)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및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따라 1964년 이전까지는 관재청(管財廳)에서, 1964년부터 1976년까지는 각 세무서(稅務署), 각 지방국세청(地方國稅廳) 및 국세청(國稅廳)에서, 1977년부터 2000년말 청산업무(清算業務)를 종결할 때까지는 재정경제부(財政經濟部)<현(現)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에 연합청산위원회(聯合清算委員會)<위원장 국고국장(國庫局長)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와 연합청산사무국(聯合清算事務局)을 설치하여 수행(遂行)하였으며, 1982년 4월 16일부터는 연합청산사무국(聯合清算事務局)을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產管理公社)<구(舊) 성업공사(成業公社)>에 설치하여 2000년 12월 31일 청산업무(清算業務)를 종결(終結)할 때까지 담당하였다.

다. 청산업무(清算業務) 추진(推進) 실적(實績)

귀속청산법인(歸屬清算法人)에 대한 청산업무(清算業務)를 추진한 결과 1964년부터 2000년말까지 총 383개 법인을 청산(清算)하여 재산매각금액(財産賣却金額) 30,791백만원, 현물증여(분배)금액(現物贈與(分配)金額) 70,310백만원, 합계(合計) 101,101백만원의 재산을 처분(處分)하였으며, 주주(株主)에 대한 현금 분배금(分配金)은 국가 24,068백만원, 민간 1,663백만원, 합계 25,731백만원을 주주분배(株主分配)하였다.(1964년 이전 관재청 당시 귀속청산법인의 청산종결 서류가 보존년한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통계에 미포함)

- ※ 청산법인(清算法人)의 재산이 도로, 구거 등으로 매각(賣却)이 곤란하거나 국가(國家)가 필요한 재산은 연합청산위원회(聯合清算委員會) 결의(決議)로 국가에 현물증여(現物贈與)·분배(分配)하고, 민법(民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이 우려되는 재산은 연합청산위원회(聯合清算委員會) 결의(決議)전이라도 국가에 현물증여(現物贈與)할 수 있음

Ⅲ.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의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 추진(推進)

1. 권리보전(權利保全)의 개념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제14조(등기·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總括廳 :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이하 “관리청(管理廳)”이라 한다)은 등기(登記) 또는 등록(登録)을 요하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소관(所管)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체 없이 국가(國家) 소유(所有)임을 등기(登記)·등록(登録)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 관리청(管理廳)의 관리(管理) 및 책임소재(責任所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청(管理廳)의 명칭(名稱)을 첨기등기(添記登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기(登記)·등록(登録), 그 밖에 권리보전(權利保全)에 필요한措置를 한 후(後)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處分)할 수 없다.<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제14조,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제9조, 동법시행규칙(同法施行規則) 제7조>

- ※ 우리나라의 부동산권리(不動產權利)의 변동(變動)은 거래(去來)의 안전(安全)을 위하여 언제나 외부(外部)에서 인식(認識)할 수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등기>을 수반하여야 하는 공시(公示)의 원칙(原則)을 채택(採擇)하고 있음

2. 권리보전(權利保全) 대상(對象) 재산(財産)

- 가. “국(國)”등기(登記)는 되어 있으나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필(畢)하지 않은 재산
- 나.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 : 부동산등기부(不動産登記簿) 또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란(所有者欄)에 일본인, 일본법인 및 일본 기관(조선총독부 등) 名義로 되어 있는 歸屬財産
- 다. 소유자 불명재산(不明財産) :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란에 “미상(未詳)” 또는 “불명(不明)”으로 기재(記載)되었거나, “공란(空欄)”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소유자(所有者)를 확인(確認)할 수 없는 재산
- 라. 부동산등기부(不動産登記簿) 및 토지(임야)대장의 멸실(滅失) 또는 망실(亡失) 등에 의하여 공부(公簿) 자체가 없어 등기(登記) 또는 등록(登録)을 확인(確認)할 수 없는 재산

3.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 요령(要領)

가.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요(要)하는 재산(財産)

- 1) 관리청(管理廳)이 경합(競合)되는 재산은 해당 관리청(管理廳)과 협의(協議)하고 협의(協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청(總括廳)에 재정(裁定)신청(申請)하여 관리환(管理換)결정서(決定書) 또는 관리청재정서(管理廳裁定書)에 의거 변경등기(變更登記)하여야 한다.
- 2) 용도폐지(用途廢止) 대상재산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공부상(公簿上) 관리청(管理廳)의 용도폐지(用途廢止) 공문(公文) 및 인계인수서(引繼引受書) 사본 등에 의거 변경등기(變更登記)하여야 한다.

- 3)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청(國稅廳)으로 등기(登記)된 재산은 국세청(國稅廳)으로부터 이관(移管)된 재산인지 여부를 인계인수서(引繼引受書) 사본과 대조(對照)·조사(調查)하여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로 변경등기(變更登記)하여야 하며, 미인계(未引繼)된 재산 일지라도 국세청(國稅廳) 행정재산(行政財産)이 아니면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로 변경등기(變更登記)하여야 한다.

나. 일본인 등 명의재산(名義財産)

- 1) 일본인 명의재산(名義財産)은 소유자가 한국인의 창씨개명(創氏改名)여부를 확인(確認)하여 사실상 일본인이 확인(確認)되는 경우에는 귀속재산(歸屬財産)이므로 관리청(管理廳) 지정(指定)을 받아 국(國)으로 이전등기(移轉登記) 및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2) 일본법인 명의재산(名義財産)은 소유권 주장자(主張者)를 조사(調查)한 후 귀속(歸屬)법인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조회(照會)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청(管理廳) 지정을 받아 국(國)으로 이전등기(移轉登記) 및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3) 일본기관(조선총독부등) 명의재산(名義財産)은 소유권 주장자(主張者)를 조사(調查)한 후 귀속재산(歸屬財産)이므로 관리청(管理廳) 지정을 받아 국(國)으로 이전등기(移轉登記) 및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 1) 소유자 불명재산(不明財産) 및 공부(公簿)의 멸실(滅失) 또는 망실(亡失) 등에 의하여 등기(登記) 또는 등록(登録)을 확인할 수 재산은 당해 재산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을 조사하여 무주재산(無主財産) 조사확인서(調查確認書)를 작성한 후 관보(官報), 일간신문(日刊新聞)에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공고(公告)를 하고 재산소재지 시·군·구·읍·면·리·동사무소 게시판(揭示板)에 14일 이상 게시(揭示)하

여 공고(公告)한다.

- 2) 공고(公告)기간(期間) 6개월이 만료(滿了)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가 없으면 관리청(管理廳) 지정을 받아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소유자(所有者)등록(登錄)을 신청하고 지적공부(地籍公簿)를 발급받아 “국(國)”명의등기 및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3) 권리자(權利者)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그 정당성(正當性)을 입증(立證)(판결문 등)하게 하고 입증(立證)되는 경우에는 등기(登記) 절차(節次)를 중단(中斷)한다.
- 4) 상속인(相續人)이 없는 재산 및 부재자(不在者) 재산으로 권리승계자(權利承繼者)가 없는 재산은 민법(民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相續人) 신고를 공고(公告)하거나 실종기간(失蹤期間) 5년 경과(經過) 후 실종선고(失蹤宣告)를 공시(公示)하여 국가귀속(國家歸屬) 절차에 의거 관리청(管理廳) 지정을 받아 “국(國)”명의등기 및 관리청(管理廳) 첨기등기(添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4.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 추진(推進) 실적(實績)

가. 1985년 1월부터 1991년말까지 제1차 국유재산(國有財産) 실태조사(實態調査)를 토대로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추진하였고, 이어서 지적전산자료(地籍電算資料)를 활용하여 1992년 9월부터 1999년 6월말까지 제2차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대대적으로 추진(推進)함으로써 총 2,452천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완료(完了)하였으며, 이중 일본인등 명의재산(名義財産), 무주재산(無主財産), 소유자 불명재산(不明財産) 840천필지, 1,866km²를 새로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 <2017년 서울시 면적(605.41km²)의 3배>

나. 2002년 9월에 대법원(大法院)의 등기전산화(登記電算化)가 완료(完

了)됨을 계기로 등기전산(登記電算) 및 지적전산자료(地籍電算資料)를 활용하여 누락재산(漏落財産)을 추가로 색출(索出)함으로써 2003년 10월부터 2008년 5월말까지 제3차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추진한 결과 총 1,645천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일본인등 명의재산(名義財産), 무주재산(無主財産), 소유자 불명재산(不明財産) 32천필지, 29km²를 새로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 <여의도 면적(8.4km²)의 3.5배>

다. 2017년말 현재 국유지(國有地) 면적은 5,679천필지, 24,996km²로 전 국토(全國土) 면적 106,108.8km²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붙임 #1 관련 통계 참조)

IV.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의 국가귀속(國家歸屬)

1. 목적(目的)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식민통치(植民統治)에 협력하고 민족(民族)을 탄압(彈壓)한 반민족행위자(反民族行爲者)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親日反民族行爲)로 축재(蓄財)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歸屬)시키고, 선의(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去來)의 안전(安全)을 도모(圖謀)함으로써 정의(正義)를 구현(俱現)하고 민족(民族)의 정기(精氣)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에 저항(抵抗)한 3·1운동(運動)의 헌법(憲法)이념을 구현(俱現)하는데 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조사위원회(調查委員會)의 설치(設置)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조사위원회(調查委員會)는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의 재산을 국가(國家)에 귀속시켜 잘못된

역사(歷史)를 바로 세운다는 목표(目標)로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에 관한 특별법(特別法)」(2005.12.29. 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3일 대통령(大統領) 직속기구(直屬機構)로 출범(出帆)하여 4년간 활동하다 2010년 7월 12일 해체(解體)되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및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의 재산(財産)”에 대한 정의(定義)는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에 관한 특별법(特別法)」제2조(정의)를 참조(붙임 #2)

3.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조사위원회(調查委員會)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및 그 후손(後孫) 168명 명의(名義)의 2,359필지 11,139,645㎡<공시지가(公示地價) 959억원, 시가(時價) 2,106억원>를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의 재산으로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시키는 성과(成果)를 거뒀다.

※ 향후 국가귀속(國家歸屬)이 확정된 친일재산(親日財産) 등은 순국선열(殉國先烈)·애국지사(愛國志士) 사업기금(事業基金)으로 조성되어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와 그 유족(遺族)의 예우(禮遇) 및 생활안정(生活安定)을 위한 지원금(支援金) 등에 사용될 예정임.

나.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및 그 후손(後孫)이 재산의 국가귀속(國家歸屬) 처분에 반발(反撥)해 95건의 소송(訴訟)이 제기 되어 법무부(法務部) 친일재산(親日財産) 환수송무팀에 이관(移管)하였다.

※ 2013.8.14. 현재 법무부(法務部) 보도자료(報道資料)에 의하면 총 95건의 소송(訴訟) 중 87건이 종결(終結)되고 그 중 84건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승소(勝訴)하였음 <승소율(勝訴率) 97%, 일부승소(一部勝訴) 포함>

다. 또한,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이 개인 등으로 등기(登記)가 넘어가 있는 은닉국유재산(隱匿國有財産) 116필지를 발견하여 후속(後續) 국유재산(國有財産) 환수업무를 기획재정부에 이관(移管)하였다.

4. 「(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 관한 특별법(特別法)」 관련 헌재(憲裁) 판례(判例)

가. 2008헌바141(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에 관한 특별법(特別法)」 제3조제1항 위헌(違憲) 소원(訴願) <합헌(合憲)>

→ “친일재산(親日財産)은 그 취득(取得)·증여(贈與) 등 원인행위(原因行爲)시에 이를 국가(國家)의 소유(所有)로 한다.”

나. 2012헌가1(2013. 7. 25.)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에 관한 특별법(特別法)」 제2조제1호 위헌(違憲) 소원(訴願) <합헌(合憲)>

→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의 정의(定義)”

다. 2016헌바454(2018. 4. 26.)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財産)의 국가귀속(國家歸屬)에 관한 특별법(特別法)」 제2조제2호 위헌(違憲) 소원(訴願) <합헌(合憲)>

→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재산의 정의(定義) 및 경과조치(經過措置)”

V. 결어(結語)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土地所有制度)가 확립(確立)되기도 전에 일본의 식민통치(植民統治) 및 토지수탈정책(土地收奪政策)으로 대부분 농민들이 소작농(小作農)으로 전락하였으며, 남북분단(南北分斷) 및 6·25전쟁(戰爭)으로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토지대장(土地臺帳) 등 재산관련 공부(公簿)가 멸실(滅失)되고,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이 다수(多數) 발생(發生)하였으며,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으로 어려운 시기(時期)를 거치는 동안 많은 수의 국유재산(國有財産)이 무단(無斷)으로 점유(占有)되는 등 국유재산관리(國有財産管理)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背景)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조직(組織)·인력(人力) 및 예산(豫算)의 부족(不足)으로 국유재산관리(國有財産管理)가 많이 미흡(未洽)하고, 특히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의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가 오랫동안 지연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국유재산(國有財産) 실태조사(實態調査) 및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를 추진(推進)하여 일본인 등 명의(名義)의 귀속재산(歸屬財産) 및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등의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置)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국가귀속(國家歸屬) 청산법인(清算法人)에 대한 청산업무(清算業務)도 終結되었다. 또한, 소유권(所有權) 분쟁(分爭)의 문제점은 다소(多少) 있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의 재산(財産)을 국가(國家)로 귀속(歸屬)시킴으로써 친일청산(親日清算)을 마무리하고 3·1운동(運動)의 헌법정신(憲法精神) 및 역사적 정의(正義)를 구현(俱現)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유재산관리 <1996년 재정경제부>
2. 국가귀속(國家歸屬) 청산법인(清算法人)의 청산자료집(清算資料集)
<2000년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3. 보도자료(報道資料)-제3차 국유재산(國有財産) 권리보전조치(權利保全措
置) 추진(推進) 현황(現況) <2008.6.11. 기획재정부>
4. 보도자료(報道資料)-친일재산(親日財産) 환수(還收) 소송(訴訟) 끝 마무리
<2013.8.14. 법무부>
5. 2017 회계연도(會計年度) 국유재산(國有財産)관리운용(管理運用)총보고
서(總報告書) <기획재정부, e나라재산-www.k-pis.go.kr>

<붙임 #1>

종류별 국유재산 보유규모

구 분	금액(억원)	비율(%)
토 지	4,630,098	43.1
건 물	677,188	6.3
공 작 물	2,821,660	26.2
입 목 족	128,387	1.2
선박·항공기	23,178	0.2
기계 기구	9,252	0.1
유 가 증 권	2,456,556	22.8
무 체 재 산	11,232	0.1
합 계	10,757,551	100.0

※ 출처 :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 종류별 국유재산 보유규모

용도별 국유지 면적규모

구 분	필지수(천필지)	면 적(km ²)		금액(억원)
			비 율(%)	
행정재산	4,995	24,193	96.8	4,360,619
일반재산	684	803	3.2	269,479
합계	5,679	24,996	100.0	4,630,098

※ 출처 :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 용도별 국유지구분

용도별 국유건물 연면적규모

구 분	건 수	연면적(천m ²)		금 액(억원)
			비 율(%)	
행정재산	138,982	164,993	99.1	665,121
일반재산	2,028	1,475	0.9	12,067
합계	141,010	166,468	100.0	677,188

※ 출처 :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 용도별 국유건물 규모

중앙관서별 국유지 면적규모

구 분	필지수	면 적(km ²)		금액(억원)
			비 율(%)	
산림청	106,094	14,922	59.7	166,500
국토교통부	3,551,833	5,526	22.1	2,306,326
농림축산식품부	1,093,550	2,099	8.4	412,760
국방부	212,163	1,366	5.5	623,844
기획재정부	631,913	449	1.8	218,364
기타	83,788	635	2.5	902,303
합계	5,679,341	24,996	100.0	4,630,098

※ 출처 :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중앙관서별 국유지 면적 규모

중앙관서별 국유건물 연면적규모

구 분	건 수	연면적(천m ²)		금 액(억원)
			비 율(%)	
국방부	102,870	50,748	30.5	272,430
산림청	1,711	42,625	25.6	6,673
교육부	3,402	12,697	7.6	86,322
대법원	1,235	10,637	6.4	15,613
국토교통부	4,877	4,477	2.7	47,607
기타	26,915	45,283	27.2	248,542
합계	141,010	166,468	100.0	677,188

※ 출처 :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중앙관서별 국유건물 연면적규모

<붙임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5.19.] [법률 제10646호, 2011.5.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위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0.22.] [법률 제11494호, 2012.10.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생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김형목¹⁾

■ 목차

- I. 시흥인들도 변화를 모색하다
- II.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다
- III. 근대교육운동 참여로 사회적인 책무를 자각하다
- IV. 나랏빛 청산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다
- V. 구국운동의 현장인 의병전쟁을 경험하다

I. 시흥인들도 변화를 모색하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였다. 불평등 조약에 의한 일본과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 쟁탈전’에 여념이 없었다. 최혜국 대우나 치외법권 인정 등은 침략을 위한 합법적인 통로로서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저들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을 내세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했다. 그런 만큼 제3세계는 온전히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편 개방과 근대국가 건설을 둘러싼 지배층 갈등은 지배체제 이완으로 이어졌다. 지방관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탈은 다반사로 자행되는 상황이었다. 농민층 불만은 갑오농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농민적 토지소유’가 실현되는 듯했다. 외세 개입은 청일전쟁을 초래함으로써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염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흥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곳은 1898년과 1904년 두 번에 걸친 대규모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전자는 지방관리들의 불법

1)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적인 수탈에 항거한 반봉건투쟁이었다.²⁾ 執綱 등은 향회를 개최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성토했다. 3천여 명 시위군중은 관아로 몰려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주도세력을 구속·수감하는 등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기식구 감싸기’는 당시 관료사회에 만연되어 폐정개혁을 위한 대안이 전혀 될 수 없었다.³⁾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한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은 오히려 심화되는 현실이었다.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제2차 농민항쟁을 촉발시키고 말았다. 이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군수품 운송이나 경의철도 부설을 위한 役夫의 강제 모집으로 일어났다.⁴⁾ 시위군중은 군수 부자와 이를 저지하는 일본인을 살해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일제는 일본군을 현지로 파견하여 주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내몰았다. 야만적이고 강경한 진압은 저들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본보기’로서 대응책이었다. 궁극적인 속셈은 진압과정이나 심문과정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곧 식민지화를 위한 ‘정지작업’ 일환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기본사료에 그대로 나타난다.⁵⁾

한편 을사늑약은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각자의 사회적인 위치나 정세판단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자강운동(이른바 애국계몽운동)과 직접적인 저항인 의병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배일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요인이었다. 시흥인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사회적인 책무는 ‘자기존재성’을 자각시키는 정신적인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대한제국기 국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⁶⁾ 이는 항일운동

2) 김형목, 「1898년 시흥 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김호일 편저, 『한국근현대이행기 사회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2000, 217-218쪽.

3) 『始興郡民擾再査案』 #규장각-26138.

4) 김호일,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시흥군지』 상,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380-396쪽 ; 김형목, 「한말 시흥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중앙사론』 6, 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1989, 183-197쪽 ; 김형목, 「대한제국기 광명지역 농민운동의 역사적 위상」, 『광명바로 알기프로젝트-광명학-』, 광명문화원, 2015 참조 ; 최홍규, 「한말의 광명지역과 농민운동」, 『광명시지』, 광명시지편찬위원회, 1993, 291-303쪽 ; 성동수 편저, 「한말 시흥의 농민운동」, 『광명지역 삼일운동과 항일 농민항쟁사』, 광명문화원, 2007, 181-204쪽.

5) 『始興稷山按覈使奏本』 #규장각-17147.

6) 시흥시의 국권회복운동과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을 참조하라.
차선혜,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③ 시흥의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

의 계승적인 발전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파행적이고 왜곡된 한국근대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책무’에 나름대로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됨을 우리는 절감한다. 이는 향후 남북통일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한 자양분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시흥시민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시흥시 3.1운동 배경, 전개양상, 역사적 성격 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진다.

II.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다.

시흥시는 1989년 시흥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편제된 행정구역이다. 당시 시흥군 군자면.수암면과 소래읍이 시흥시 행정구역이 되었다. ‘시흥’은 정조 19년(1795)에 ‘금천현’을 개칭하면서 시작된다. 1912년까지 행정구역은 군내면(3).동면(5).서면(4).남면(3).상북면(4).하북면(3) 등 6개 면 22개 동리였다(괄호 안은 소속된 동리 수).⁷⁾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강점기 1914년에 이루어졌다. 과천군 전부와 안산군 일부를 통합하여 북면.신동면.동면.서면.과천면.서이면.남면.군자면.수암면 등 9개 면 162개 동리로 대폭 확대되었다. 1940년대 안양면.서면.신동면.남면.과천면.동면.군자면.수암면 등 8개 면 71개 동리로 축소되는 변화를 초래했다.⁸⁾

해방 이후 신도면과 동면 일부는 서울시로 편입되어 안양읍.서면.과천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의 6개 읍.면으로 조정되었다. 1970년대 위성도시 건설로 행정구역 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안양읍은 1973년 시흥군에서 분리되어 안양시로 승격했다. 동시에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래면은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79년에는 반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암면의 6개 리와

회, 2007 : 김형목, 「대한제국기 인천지역 근대교육운동 주체와 성격」, 『인천학연구』 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 김형목, 「안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리포트 VII / 안산툭아보기』, 안산학연구원, 2016 :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리포트 VIII / 안산툭아보기』, 안산학연구원, 2017.

7) 조선총독부, 「시흥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74-75쪽.

8)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연혁」, 『시흥군지』 상, 1988 참조.

군자면 7개 리가 반월출장소에 편입되었다. 시흥군 소속 분리과정은 수도권 개발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1년 서면은 광명시, 1986년 과천면은 과천시, 1989년 군포읍과 의왕읍은 각각 군포시와 의왕시로 승격·분리되었다. 이때 시흥군도 시흥시로 승격되었는데, 행정구역은 군자면·수암면·소래면 등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시흥군의 행정구역 개편은 오늘날 시흥시는 본래 시흥군과 전혀 다른 지역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⁹⁾

현재 시흥시 행정구역을 이루는 군자면·수암면·소래면 등의 원래 행정구역상 유래는 어디일까. 군자면과 수암면은 오랜 동안 안산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1914년 통폐합 당시 안산군 해체와 함께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1914년 이전까지 안산군 군내면·영화면(일명 인화면)·초산면·대월면·와리면·마유면 등에 해당한다. 당시 안산군은 이 외에 성곶면·북방면·월곡면 등 9개 면 87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⁰⁾ 반면 소래면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이전에는 인천군 신현면(일명 신고개면)·전반면·황등천면에 해당한다. 곧 안산군과 인천군 일부 지역이 오늘날 시흥시 행정구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890년대를 전후로 시흥지역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동학교도들은 구국운동에 동참하였다. 참여를 통한 소중한 경험은 일상사 변화와 아울러 자신들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는 상황은 배일의식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더욱이 지방관의 불법적인 수탈이 만연한 상황은 농민층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3대 교주 손병희는 ‘삼전론(三戰論)’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¹¹⁾ 천도교의 ‘자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급진전되었다.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신교도 안산지역에 유입되었다. 최초 기록은 1897년 4월 7일자이다. “지나간 이십일일 주일에 안산 읍내에서 리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사나이 일곱과 여인 둘과 어린 아이 셋이 세례를 받고 다섯 사람은 원입 교인이 되었다더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리 목사는 남감리교 목사이자 의사인 리덕(李德, Reid. Rev.)을 말한다.¹²⁾ 그는 열성

9) 차선훈,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시사 ③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12-13쪽.

10) 조선총독부, 「안산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72-73쪽.

11) 황선희, 「손병희의 인내천 사상과 역사의식」, 『동학·천도교 역사의 재조명』, 모시는사람들, 2009 참조.

적인 선교사업으로 현지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수원과 남양(현 화성)을 거점으로 하는 교세는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수원 삼일여학교, 삼일남학교와 화성 보흥학교의 설립·운영 등은 이를 반증한다.¹³⁾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교회나 학교는 단순한 ‘기도처나 배움터’로서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생활공동체이자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장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절대자 앞에서 평등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이제 사회생활을 위한 평온한 생활공간은 바로 여기였다. 특히 여성들은 이곳을 통하여 남녀평등이니 인간의 존엄 등과 같은 너무나 생소한 의미를 접하게 되었다. 곧 여성들의 외부 세계와 접하는 통로는 교회와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학교에 주목해야 할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신앙생활과 더불어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표출되는 상황을 맞았다. 어쩌면 천지개벽과도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¹⁵⁾ 변화를 수렴하려는 욕구는 개인적인 능력 향상임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외부 세계와 소통이나 교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교세 확장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도 야기되었다. 방죽외에 사는 교도 홍덕순은 동회 때 통문에서 이름을 삭제하자 동장이 고소하여 체포하려 온 차사에게 예물까지 받쳤다. 인천의 남촌면에서는 “당곳을 하는데 그 동리에 예수교 하는 네 사람의 집에서 굶는 돈 추렴을 안 내었더니 동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돈 추렴을 안한 일로 흥계를 꾸며 집을 부수고 내쫓기로 했다.”¹⁶⁾는 사실에서 공동체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반면 토지에서 일탈된 민중층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장시를 중심으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였다. 수적과 화적(水賊·火賊) 등 빈번한 출현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12) 홍석창, 『최용신과 샘골마을 사람들』, 한국감리교사학회, 2010, 30쪽.

13)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경인문화사, 2016, 55-58쪽.

14) 이지애, 「개화기 ‘배움터’의 변화와 ‘자아찾기’로의 일상사」, 『근대의 첫 경험』, 이화여대출판부, 2006.

15)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참조.

16) 『독립신문』 1897년 6월 5일 잡보.

① 비도 40여 명이 인천부 전반면 오리골 근처 남쪽 길에서 3-5명씩 동행하여 행인 모양으로 점점 방축 머리 점막에 이르러서는 무리를 이루어 작당하여 창과 총을 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장사와 행객들을 잡아 결박하고 재물을 뺏으며 무수히 작경하는 고로 그 근처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도적놈들에게 당한 사람을 구완하려한즉 ...¹⁷⁾

② 인천항 감리의 공보에 3월 20일 밤 사천장에 화적당이 돌입하여 백성들을 결박하고 재산을 모두 탈취해 가 백성이 흩어지고 상로가 두절함에 순교를 파견하여 도적을 탐문하나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¹⁸⁾

③ 인천군 중립 등지에 적경(賊警)이 매우 극심하여 일반 촌민들이 저마다 목봉과 총검을 준비해 놓고 방어하고 있다.¹⁹⁾

④ 경기인의 말을 들은 즉 인천 중립에 사는 부호 정윤영 집에 강도 30여 명이 쳐들어와 가족을 포박하고 가산집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더라.²⁰⁾

도적떼의 극성은 당시 불안정한 지배체제와 아울러 민중층의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문제였다. 이는 시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902년 2월에는 “근일 인천부와 부평군에 도적이 극심하여 수십 명씩 작당하여 민간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는 일이 많아 민심이 흉흉하다.”는 기사는 당시 사회적인 불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²¹⁾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치안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은 불법적인 수탈과 맞물려 농민항쟁으로 진전되는 분위기였다.

Ⅲ. 근대교육운동 참여로 사회적인 책무를 자각하다

시흥시 근대교육은 안산공립소학교가 설립된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원은 한성사범학교 출신 김광식이 11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이후 최정하(1901. 3. 2), 김건식(1901. 4. 8), 박지양(1903. 8. 28), 박윤형(1903. 10. 16), 김건식(1904. 1. 30), 정원석(1905. 10. 17) 등은 각각 교

17) 『독립신문』 1897년 11월 18일 잡보.

18) 『황성신문』 1901년 4월 2일 잡보.

19)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6일 잡보 「仁民防賊」.

20)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8일 잡보 「仁川賊警」.

21) 차선희,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③ 시흥의 근현대』, 81쪽.

원으로 부임하였다.²²⁾ 하지만 구체적인 학교 운영 상황이나 교육 내용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개교는 하였으나 사실상 폐교와 다를없는 상황이었다. 1908년 6월에 안산공립보통학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안산군공립보통학교는 설립이 6~7년을 경과하였으나 수년래로 자귀폐치(自歸廢置)하였더니 본군수 이석재(李奭宰)가 유지신사를 권유하여 신선(新鮮)히 학교를 수축하며 학도 60여 명을 모집하여 7월 7일에 개교식을 거행할 때 국가의 자주기초를 학도에게 담임하는 연설로 열성 권고하니 모두 감복하여 다수한 의연금을 쟁출(爭出)하며 초목(樵牧)도 역시 모두 흥기(興起)하여 야학과를 설치하고 응모자 50여 명에 달하였으므로 본군수와 재무서장 이성의(李聖儀)와 찬성장 엄주한(嚴柱漢)과 훈도 이원항(李源瓊)의 교육상 열심이 사람에게 감발(感發)하여 전군 내(全郡內) 각 면에 학교를 차차 널리 세울 방침을 경내 신사와 협의 연구하여 금년 가을에 실시할 주의를 확정하였다하니 찬송불이(讚頌不已)하노라.²³⁾

즉 안산공립보통학교는 설립된 지 6~7년 동안 폐교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군수 이석재는 국가의 자주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재개교를 단행하였다.²⁴⁾ 그의 열성으로 학도는 60여 명에 달하는 등 면학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다.

안산공립보통학교 낙성식에 군수를 비롯한 주민들 의연은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수를 비롯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군수 이석재를 비롯한 재무서장 이성의, 군주사 최세영 등은 앞장섰다. 정현철은 매달 1원을 의연하기로 서약하였다. 다른 주민들도 각자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 실천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²⁵⁾ 당시 의연금은 대단한 거금이었다. 이는 일제 침략에 따른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통한 경험과 현실인식 심화로 가능할 수 있었다.

시흥시 계몽운동은 을사늑약 직후 근대교육 시행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는 전후로 근대교육 보급을 위한 사립학교설립운동이나 야학운동은 이곳을 대표하는 계몽운동 영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22) 古川昭(이성욱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2006, 25.36쪽.

23) 『황성신문』 1908년 7월 5일 잡보 「安倅興學」.

24)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리포트 VIII / 안산툭아보기』, 129.132쪽.

25) 『황성신문』 1908년 4월 30일 관보 「公立安山郡普通學校補助人員落成宴時」.

무되는 인물은 전주사 이민선(李敏善)과 군수 이석재이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보여준다.

안산군 와리면 초지보통학교는 전주사 이민선씨가 창립한 지 3개년에 제반 경비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여 열심 교육하더니 본년 4월 15일에 제3회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교감 이민선씨가 대지(大旨)를 설명한 후 교사 조형옥(趙滢玉) 유철수(劉轍洙) 양씨와 내빈 정규석(鄭圭錫) 제씨는 권면으로 일장 연설함에 학생 중 김종필(金鍾弼)씨가 답사하고 58명 학원은 체조와 창가로 축하를 질주(疾走)하며 600-700명 관중은 찬송의 환성이 산야에 양일(洋溢)하여 성황을 정(呈)하였다더라.²⁶⁾

1906년 초지보통학교를 설립한 이민선은 단독으로 학교운영비를 부담하는 한편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자신의 육영사업을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어학과와 한문과 명예교사를 자원한 공립보통학교 부교원 이교철(李教哲)과 박제혁(朴齊赫) 열성은 이를 충분하게 보여준다.²⁷⁾ 제3회 개교에 즈음하여 성대한 기념식 거행은 이러한 인식을 교육현장에 접목하려는 의도였다. 교감으로서 밝힌 소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는 교육 목적을 능력 배양과 아울러 장차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인간 양성임을 내세웠다. 교사 조형옥·유철수와 내빈 정규석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도 이에 부응하여 평소에 익힌 체조와 창가를 능란하게 선보였다. 체조와 창가를 강조한 부분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서사시’였다. 참석한 주민들 600-700여 명은 박수갈채와 아울러 질서정연한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 너무나 감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학교는 초등과와 고등과로 운영하였는데, 학생들 지적 능력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정기적인 학습평가는 단순한 지적 능력 배양에만 있지 않았다. “...(상략)...교장 본군수 이석재, 교감 이민선, 교원 이교철, 교사 박제혁 제씨가 회집하여 상품을 우수분급(優數分給)하고 신사상으로 연설 권면하는데, 군수 이석재는 특별히 공책·필묵 등물(等物)을 자판(自辦)하여 낙제생까지 분급하여 향후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장(勸獎) 연설한 후 다과를 진(進)하여 학도부형과 내빈을 대접하고 폐회하였다. 당일 해교에서

26) 편집부, 「학계휘문 : 지교예식」, 『기호흥학회월보』 11, 1909.6 : 『황성신문』 1909년 4월 27일 잡보 「芝校禮式」.

27)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9일 잡보 「草校有進」.

정황으로는 해군(該郡)에 처음으로 성황을 정(呈)하였다더라.”²⁸⁾ 이는 자연스럽게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계몽운동 확산에 따른 현실인식 심화는 이와 맞물려 진전되어 나갔다. 안산군수 이석재는 민지계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안산군 사립학교가 3처인 바 경비가 부족하여 폐교지경(廢校地境)에 장차 이르매 본군수 이석재(李奭宰)씨가 경내 유지신사 기인(幾人)과 상의하여 석유를 합자매매(合資買賣)하여 그 이익으로 3처 학교에 매달 엽전 35냥씩 연조(補助)하고 경내 9면 호포(戶布) 반등(半等)을 대납하여 그 이익을 경내 대소 인민이 균점(均霑)하게 하오니 불응감하(不勝感荷)하여 이에 광포(廣佈)함. 안산사민 고백.²⁹⁾

군수 이석재는 부임한 이래 근대교육 보급에 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더욱이 경내 유지신사와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안산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이를 반증한다. 강한 유대감은 이를 추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석재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등 학교 설립을 유도하였다. 그의 노력은 관내 사립학교 설립과 더불어 시세변화에 부응하는 주민들 생활 변화로 이어졌다. “안산군수 이석재가 교육상에 열심 주의하여 해군에 있는 학교에 시시전왕(時時前往)하여 일반학원에게 정신적 교육을 무도(務圖)하려고 일장 권면함에 이들 학원이 무불감하(無不感賀)할 뿐만 아니라 교황(校況)이 일층 확장하여 학원이 일증월가(日增月加)한다 하며 노동학원이 다수 입학하여 장차 진취할 가망이라더라.”³⁰⁾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하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안산군수 조중은(趙重恩)은 유지신사 정현철.엄주한.조병식.임선준 등과 농업야학교를 설립하였다.³¹⁾ 이들 활동에 대해 신문은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28) 『황성신문』 1908년 1월 25일 잡보 「安校經識」: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리포트 VIII』, 133-134쪽.

29) 『황성신문』 1907년 2월 22-25일 광고.

3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5일 잡보 「安倅勸학」. 군수 이석재의 부일적인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대교육에 열성적인 부분은 향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다른 군수 등도 마찬가지이다.

31)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 97쪽.

안산군수 조중은, 신사 정현철 엄주한 조병식 임갑준 제씨가 발기하여 농업야 학교를 설립하고 학도를 모집하는데 당일 출석학도가 40여 명이라. 경성 계동에 사는 현채(玄采)씨가 교과서 3질까지 기부하였는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장래 발전이 매우 낙관적이라더라.³²⁾

개교당일 출석한 생도는 4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현채는 교과서 3질을 기부하는 등 향학열을 부추겼다. 학생들은 이에 감복하여 열심히 면학에 힘쓰는 등 장래 발전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근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부인들 인식변화로 귀결되었다. 동군 와리면 원하리 정태완(鄭泰完) 부인은 부군을 위한 학자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여론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여인상’으로 부각되었다. “안산군 와리면 원하리 정태완의 부인 류씨는 올해 나이 20여 세인데, 가군(家君)의 학비군간(學費窘艱)함을 위하여 침공잔금(針工殘金)으로 그 비용을 담당한다 하니 류씨는 가히 부인계에 모범이 될 만하다더라.”³³⁾ 부인의 열성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인식되었다. 일상사에서 작은 변화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에너지원이었다.

한편 인천부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에서 사립학교설립운동은 활성화되었다. 황등천면 부호 정윤영(鄭允永)은 1906년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명칭이나 교육 내용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는 자선의무(慈善義務)로 학교를 설립하여 총준자제에게 근대교육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한다.³⁴⁾ 2년 후에 과림동에 전우태(全宇泰)는 전문교육기관인 창흥측량학교를 세웠다. 재학생 유승렬은 신문에 교주의 열성적인 활동을 광고로 널리 알렸다.³⁵⁾ 신현면에도 흥인의숙과 진명의숙을 세워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세변화에 부응하고 있었다. 임원진은 교과서나 교재 등도 무료로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조시켰다. 부설로 운영된 노동야학은 이러

32) 『황성신문』 1909년 12월 14일 잡보 「安郡農學」.

33) 기호흥학회, 「학계휘문, 부인열심」 『기호흥학회월보』 8, 65쪽 :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7일 잡보 「부인열심」.

34)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0일자.

35)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7일 광고.

한 사실을 그대로 반증한다.³⁶⁾ 이들에게 근대교육 시행은 사회적 책무로서 인식될 만큼 열성적이었다. 곧 노동야학 운영은 ‘새로움 배움터’로서 근대교육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주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계몽운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면 진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설립·운영된 야학을 포함한 근대교육기관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한제국기 시흥시의 근대교육기관 현황³⁷⁾

년도	학교명칭	소재지	설립자	임원진	주요 내용	학생수	전거
1906	사립학교	황등천면 중립	정운영	-	자선의무	다수	大1906.7.20
1907	초지보통학교	안산 와리면 초지	이민선	이 석 재 (군수); 교장, 이민선; 교감, 이 교 철; 어학, 박 제 혁; 한 문, 조 형 옥 · 유철수; 교사	한문·어학·체조·창가	90	大1907.9.19 ;황1908.1.25,7.5,1909.4.27;『기』11-48
	일어학교; 일어원중학교	안산 혁신 유곡리	일 본 인, 유지사	森下四方治; 교사	일어	-	大1907.10.23;황1907.10.22,1908.7.5
	신영학교	안산 와리면 신각	유 윤 일 · 윤 세 영 · 함 성 화 · 정 경 칠	김 두 혁 · 문 미 필; 교사	국문·한문·산술·체조	40	大1908.4.22 ;황1908.7.5

36) 차선훈,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③ 시흥의 근현대』, 86쪽.

37) 차선훈,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③ 시흥의 근현대』, 86-88쪽 : 김형목, 「대한제국기 인천지역 근대교육운동 주체와 성격」, 『인천학연구』 3, 82-85쪽 :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리포트 VIII』, 142-143쪽 참고로 작성.

1908	신영야학교	안산 와리면	함원식	신영주학교	-	-	대1909.2.17
	야학교 7개교	안산	초동목수	공보교·기독학교·양산학교·양산학교	연합운동회	100	大1908.5.22 ;황1908.4.3 0,7.5
	기독교학교	안산	-	-	성경	-	大1908.5.22 ;황1908.4.3 0,7.5
	양산학교	안산	-	-	-	-	大1908.5.22 ;황1908.4.3 0,7.5
	대성학교	안산 와리면 원상리	-	-	주야학, 학 기시험	주학:31 야학:20	大1908.7.17 ;황1908.7.5
	창흥측량학교	황등천면 과림동	전우태	류승렬	측량술;전문 교육	-	大1908.11.2 7
	흥인의숙	신현면 국동	엄선영	이세근·숙감	보통과정	30	대1908.9.12 .;大1908.10. 19
진명의숙	신현면	정형택· 정우택 형제	좌동	노동야학 부설	30	大1908.12.1 9.,1909.4.27 .;대1909.4.2 8	

<표 1>은 시흥시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 중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개량서당 등도 운영되었다고 짐작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 1910-20년대 경기도에서 운영된 개량서당이나 의숙 등은 적지 않았다. 향후 문집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새로운 ‘배움터’로서 야학이다. 신영야학교를 비롯하여 관내에 운영된 7개 야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요한 교과목은 국문·한문·체조·창가 등으로 보통학교와 유사하였다. 공립보통학교와 기독교·양산학교 교학년은 명예교사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³⁸⁾ 시흥시에 전래된 개신교에 의한 교육활동 등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든든한

38)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 리포트 Ⅷ / 안산툭아보기』, 144쪽.

맡거름이었다.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한 학생들은 근대교육 보급과 맞물려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육적인 수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인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지방관과 유지들에 의한 육영사업도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연합운동회 개최는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한 경쟁심을 일깨우는 교육현장이었다. 교류 확대는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동시에 향후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주민들도 시세변화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였다. 곧 연합운동회는 지역축제로서 주민들이 일심동체임을 확인시키는 공론의 현장이었다. 나아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책무를 느끼는 생활 현장이나 다름없었다.³⁹⁾ 공동체적인 삶은 근대교육을 통하여 확산됨으로 소통에 의한 유대감 강화로 귀결되었다. 상호간 교류는 공동체 현안을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역 단위로 개최된 연합운동회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IV. 나랏빛 청산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燾) 등 발의로 1907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구광문사를 대동광문회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회의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신호탄을 알렸다. 「국채보상 1300만원취지서」는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결정적인 기폭제였다. 대구 북후정에서 개최된 군민대회는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⁴⁰⁾ 국채보상운동은 쓰나미와 같은 위력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 한인사회로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소식을 접한 광무황제는 “우리 백성들이 국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연하고 그 값을 모은다 하는데 짐이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며 단연에 앞장섰다. 영친왕 길례(吉禮)도 연기하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⁴¹⁾

39)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경인문화사, 2016, 48.58쪽.

40) 최기영,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애국계몽운동 II(문화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3』,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36-238쪽.

41)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잡보 「大哉皇君」, 3월 7일 잡보 「聖意如天」.

최고지배층의 솔선수범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수방관하던 고관들의 모금대열 참여는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의연금 모집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채보상회 조직과 이를 선전·홍보하기 위한 취지서는 곳곳에서 발표되었다. 1907년 8월까지 조직된 단체는 최소한 100여 개소 이상에 달했다. 활동가들은 취지서를 신문에 광고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운집한 장날 내왕이 많은 곳에 내걸었다. 상인들은 각지에서 전개되는 소식이나 미담을 실시간에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농민이나 노동자는 물론 극빈한 살림살이를 맡은 이름 없는 부녀자들도 동참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흔쾌히 의연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노파·주모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백정·야장(冶匠) 등 참여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⁴²⁾

심지어 미국·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 등도 동참하는 열띤 분위기였다.⁴³⁾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공립협회원 김성무·임치정·이교담 등은 3월 25일 국채보상의연발기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박형모·남궁염·신봉희·염달욱 등도 취지서 발표와 동시에 의연금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수금위원은 황사용·강영태·신봉희·염달욱 등이 맡았다. 대동보국회는 173원 50전과 고달픈 외국생활을 하는 한인 등은 212원을 대한매일신보사로 의연금을 보냈다. 중앙회장 이병호(李秉瑚)와 서기 변창수(邊昌洙) 명의로 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역시 취지서를 발표함으로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⁴⁴⁾

한편 충주에 거주하던 어떤 사람은 의연금을 모아 상경하는 도중에 도둑들을 만나 이를 빼앗겼다. 그는 도둑을 향하여 “이는 국채보상금이니 내 비록 (의연금)을 빼앗겼으나 너희는 불과 몇 십리 못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

42) 김형목, 「안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이것이 안산이다- 안산학연구 VII / 안산툭아보기』, 안산학연구원, 2016, 21쪽.

43) 김형목, 『김광제, 나랏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도서출판 선인, 2012, 109~112쪽.

44) 『공립신보』 1907년 4월 26일 별보 「國債報償義捐發起文」: 김형목, 「안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이것이 안산이다-안산학 리포트 VII / 안산툭아보기』, 20쪽.

리라.”고 하자, 도둑떼는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이 국채보상금인 줄 전연 몰랐노라.”하면서 즉시 되돌려 주었다. 더욱이 10원을 보태어 주면서 ‘국채보상에 보태 쓰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성명을 물으니 “노출이 불가하니 상경하거든 충주 등지의 도둑들이 국채보상금 10원을 의연하였다고 신문에 게재하라.”고 말했다.⁴⁵⁾ 이는 언론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걸인·죄수 등 참여도 미담 사례로서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⁴⁶⁾

국민운동으로 진전을 거듭하자 통일적으로 이끌어갈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광제·이종일·오영근 등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조직했다. 당시 소장은 한규설(후에 윤웅렬로 교체), 부소장 김종한, 회계감독 박용규·서병규, 감사원 이강호·양기탁·이면우, 평의원 12명 등으로 구성되었다.⁴⁷⁾ 이와 동시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도 조직되었다. 기존 단체와 긴밀한 협조에 따라 의연금 수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였다.⁴⁸⁾ 물론 통합적인 국채보상운동 추진을 위한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정·통합하려는 시도는 민족적인 역량 확대를 모색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 아동에 대한 찬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쟁적인 의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장날은 주민들에게 국채보상에 대한 의미를 선전하는데 매우 적합한 현상이었다. 상인들은 유통망 만큼이나 각지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에 대한 정보 전파에 노력하였다.⁴⁹⁾ 더불어 계몽단체나 종교계도 참여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용인군 동아개진교육회와 남양군 대한자강회 지회, 수원 성공회 신부 부재열(夫在烈), 남양군 쌍부압 정면 천도교인, 강화군 예수교당, 장단군 화장사 교인들, 용주사(龍珠寺) 승려 동참은 대표적이다.⁵⁰⁾

45) 김형목, 「충청북도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69쪽.

46) 김형목, 「왜 국채보상운동에 주목하는가」, 『독립기념관』 8월호, 독립기념관, 2017, 23쪽.

47)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8일 잡보 「국채보상지원금총회소 규정」, 4월 11일 잡보 「조직총회」.

48)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8일 잡보 「兩所歸一」.

49)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6-17쪽.

50) 김형목, 「국채보상운동」, 『수원시사-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8, 47쪽.

여성들도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모금활동을 이어 나갔다. 강화군 길상면 민준식 부인 장씨는 서울 대안동부인총회로 의연금을 보냈다. 총회는 공함을 보내어 강화부인회 설립을 독려함으로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국미적성회.남양군부인의성회.안성군국채보상부인회.김포 검단면 국채보상사무소 등이 조직되었다.⁵¹⁾ 동리 단위로 모금하는 과정에도 부인들이 참여함으로 국채보상운동 참여 계층 확대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시흥시 국채보상운동은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보도된 인물은 초산면 관곡금송계원 장덕진(張德震) 등과 인화면 염곡 주민 김영성(金永聲) 등으로 3월 28일자 『황성신문』이다. 관곡금송계원은 20원과 염곡 주민 31명은 6원 80전을 의연하였다.⁵²⁾ 당시 장덕진의 열성적인 활동은 주목을 받았다.

안산군 초산면 사는 장덕진씨가 국채보상에 대하여 해군 각 면에 발통(發通)하여 의금(義金)을 모집하되 각동으로 수합하여 경성 사회수금소로 보내고 혹 직송(直送)치 못할 경우에는 읍저(邑底) 사는 전주사 임갑준(任甲準)씨 사제(私第)로 수집하였다가 경성으로 전치(轉致)케 하고 또 장덕진씨가 해 동중에 금송(禁松)하기 위하여 설계(設契)한 일이 있더니 국채보상에 계전(契錢)을 절용(折用)하기로 발론(發論)하여 신화 20환을 본사로 송치하였기에 해씨의 의무를 찬송불이(攢頌不已)하노라.⁵³⁾

그는 군내 각 면으로 취지서를 보내어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수금된 금액은 서울 수금소로 직접 보내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읍내에 사는 임갑준에게 일시 보관하였다가 우송하였다. 금송계(禁松契) 조직이나 운영 원리 등을 의연금 모집에 활용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명망을 가진 인물로 생각된다. 이는 마을에서 계승된 향촌공동체적인 운영방식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물론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 부과하는 어느 정도 반발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강원도 강릉이나 경북 고령 등지 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⁴⁾ 곧 당

51)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7일 잡보 「婦人之會」.

52) 김형목, 「안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이것이 안산이다-안산학 리포트 VII / 안산툭아보기』, 31쪽.

53) 『황성신문』 1907년 3월 28일 잡보 「張氏出義」: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일 광고.

54) 김형목, 「강원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

시 일반적인 모금방식은 경제력에 의한 각출이었다. 이를 두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정적으로 평가·이해하는 연구도 있다.

초산면은 장덕진 20원 의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목암리 신현요 등 12명은 7월 70전, 상직동 박관춘 등 36명은 20원 40전, 하중리 이연직 등 51명은 27원 55전과 역시 하중리 김홍겸 등 45명은 21원 37전을 거두었다. 이어 조남리 신정휴 등 26명은 9월 60전과 조남리 최하석 등 27명은 6월 40전, 제청리 장관진 등 27명은 10월 40전을 수금하였다.⁵⁵⁾ 초산면은 3월부터 6월까지 모금활동이 전개되었다.

인화면 염곡 김영성 등 31명은 6월 80전, 화정리 윤종선·이종영 등 주민들은 15원을 모았다. 와상리 김상익 등 25명은 9월 95전, 월피동 유응렬 등 66명은 27원 40전을 의연하였다.⁵⁶⁾ 이곳은 3월부터 6월까지 모금활동이 전개되었다. 참여인원은 약 150여 명 전후로 추정된다.

마유면은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진행되었다. 장상두일리 권희용 등 25명은 15월 25전, 장종리 이종화 등 18명은 6월 80전, 도촌리 이윤실 등 13명은 2월 80전을 모았다. 이어 조현리 김형식 등 59명은 37월 10전, 죽울리 김성현 등 73명은 20월, 응곡리 이건설 등 33명은 당오전 620냥을 거두었다. 장상리 이종태 등 20명은 10월 95전, 구지정 당윤주 등 동중에서도 6월 20전을 모금하였다.⁵⁷⁾ 동중 모금은 전통적인 구휼상난에서 보여준 미풍양속을 계승·변형한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변화 속에서 소통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빈궁한 생활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빛을 발휘하는 요인이었다.

군내면 조대희는 개인적으로 황성신문사에 직접 의연금 20전 5리를 보냈다. 양동 엄주환 10원과 엄주흥 6원을 비롯하여 77명은 49월 34전, 동곡 김성진 등 39명도 6월 77전 6리, 부곡 유혁수 등 23명은 8월, 장하리 이한우 등 28명은 8월 40전, 양하리 윤후석 등 16명은 7월 60전을 모았다. 양

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21쪽.

55) 『황성신문』 1907년 3월 28일 잡보 「張氏出義」, 4월 2.23일 광고, 5월 29일 광고, 6월 28일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7.27일 광고, 5월 9.10일 광고, 6월 30일 광고.

56) 『황성신문』 1907년 3월 28일 광고, 5월 11일 광고, 6월 28일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8일 광고.

57)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1.19일 광고, 6월 18일 광고 : 『황성신문』 5월 27일 광고, 6월 12.28일 광고, 7월 6.31일 광고.

곡 이기형은 직접 25전을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다.⁵⁸⁾ 군내면 모금활동은 비교적 늦은 6월에 시작되어 9월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의병전쟁 확산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이러한 양상은 민중층 성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월곡면 일리동 이종필 등 16명은 신화 8월 20전, 대대동 이교설 등 28명은 12월 60전을 각각 의연하였다. 월암동 도연춘 등 36명은 당오전 415냥을 모금하는 등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이곳은 도씨의 출원이 많은 사실에서 집성촌으로 짐작이 된다. 사사리 조희달 등 76명은 30원 19전, 입북동 김영희 등 24명은 8원 20전을 모았다.⁵⁹⁾ 이곳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의연금 모금이 이루어졌다.

대월면 선부동은 면내 동리 중 유일하게 모금한 지역이다. 안복진 등 18명은 4원을 거두었다.⁶⁰⁾ 다른 면과 달리 이곳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이를 주도하는 세력 부재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진한 이유 등은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다른 지역 사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시흥시 국채보상운동은 3월부터 9월까지 전개되었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면단위로 많은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향후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규명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여성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으나 가족들과 함께 부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등 사회적인 존재성을 드러내었다. 부부가 함께 동참한 사실은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만약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고한 경우에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너무나 파격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이곳은 개신교 유입 등도 인근 지역보다 비교적 늦게 전래되었다.

고용인이나 노동자 참여 등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와리면 신각동 목동야학생들 참여는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현장이나 마찬가지였다.⁶¹⁾ 교사 김두혁, 문휘필의 각 20전을 비롯하여 학생들

58) 『황성신문』 1907년 6월 26, 28일 광고, 9월 28일 광고;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7일 광고.

59)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 광고, 5월 3, 8일 광고, 9월 14일 광고;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2일 광고.

60) 『황성신문』 1907년 6월 28일 광고.

61)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5일 광고.

도 각 5전 등 모두 1원45전을 의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내로 확산되는 등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관내에 설립·운영된 7개교 야학은 이를 반증한다. 1930년대 최용신의 농촌계몽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곧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현장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참여를 통한 현실인식은 새로움을 향한 정신적인 유산으로 집적되어 나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되었다. 이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원이었다. 관내 참여인원과 모금현황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시흥시 국채보상 의연금 모집현황

면 명	동 리 명	참 여 인 원	모 금 액	진 거
草山面	목암리	신현요 등 12명	7원70전	대4.7,5.9
	상직동리	박관춘 등 36명	20원 40전	대4.27,5.10
	하중리	이연직 등 51명	27원 55전	대6.30
	관곡금송계	장덕진	20원	황3.28,4.1
	조남리	신정휴 등 26명	9원 60전	황4.23
	조남리	최하석 등 27명	6원 40전	황6.28
	하중리	김홍겸 등 45명	21원 37전	황5.29
	제청리	장관진 등 27명	10원 40전	황6.28
仁化面	화정리	윤종선 등 리중	15원	대4.28
	염곡	김영성 등 31명	6원 80전	황3.28
	와상리	김상익 등 25명	9원 95전	황5.11
	월피동	유응렬 등 66명	27원 40전	황6.28
月谷面	사사리	조희달 등 76명	30원 19전	대9.12
	1리동	이종필 등 16명	8원 20전	황4.15,5.3
	대대동	이교설 등 28명	12원 60전	황4.15
	월암동	도연춘 등 36명	당오전 415냥	황5.8
	입북동	김영희 등 24명	8원 20전	황9.14
郡内面	양곡	이기형	25전	대9.17
		조대희	25전 5리	황6.26
	양동	엄주환 등 77명	49원 34전	황6.28
	동곡	김성진 등 39명	6원 77전 5리	황6.28
	부곡	유혁수 등 23명	8원	황6.28

	장하리	이한우 등 28명	8원 40전	황6.28
	양하리	윤후석 등 16명	7원 60전	황6.28
	장상	장고식 등 22명	엽전 50냥	황9.22
大月面	선부동	안복진 등 18명	4원	황6.28
馬遊面	장상리	리중	15원 25전	대5.11
	장상두일리	권희용 등 25명	15원 25전	대5.19
	장중리	이중화 등 18명	6원 80전	대6.18
	도촌리	이윤실 등 13명	2원 80전	황5.27
	조현리	김형식 등 59명	37원 10전	황5.27
	죽올리	김성현 등 73명	20원	황6.12
	응곡리	이건섭 등 33명	당오 620냥	황6.28
	장상리	이종태 등 20명	10원 95전	황7.6
瓦里面	구지정	당윤주 등 동중	6원 20전	황7.31
	선곡리	이순형 등 8명	3원 40전	대4.17
	시우동	김필호	10원	대4.20,5.10
	신각리	함원식 등 58명	33원 55전	대6.25
	신각리	목동야학 22명	1원 45전	대6.25
	성두동	최소사 등 45명	14원 55전	대7.5
무곡동	고명숙 등 8명			

<표 2>를 통하여 시흥시 국채보상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미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인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보다 엄밀한 상황은 공간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최소한 각 군별 모금액수와 참여인원, 나아가 모금활동이 전개된 기간 등 많은 변수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지역별 사례 연구가 일정한 현재로서 성급한 판단은 일단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곳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여성사나 여성운동사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상징’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들 참여는 한국근대사를 관통하는 ‘자기모습’을 알려준다. 금기나 마찬가지로 사회운동 참여는 곧 국채보상운동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시대를 초월한 이러한 역동성은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V. 구국운동의 현장인 의병전쟁을 경험하다

시흥시 지역은 후기 의병전쟁 격화로 사회적인 불안이 적지 않았다.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이듬해 9월까지 의병전쟁은 가장 활기를 띠었다. 친일세력인 일진회에 대한 공격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일진회는 자위단을 조직하여 의병부대에 관한 정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는 등 반민족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신 일제 경찰이나 헌병대 보호를 받는 등 파렴치한 극치를 이루었다. 다음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기경무관 김선영(金善泳)이 내부로 보고하되 본월(1907년 10월-필자주) 11일 상오 7시에 의병 20여 명이 안양 등지로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에 이르러 민가 소재 엽총(獵銃) 삼병(三柄)과 육혈포 1병을 가지고 사립일신학교사(私立日語學校教師) 삼하사방치(森下四方治)의 부처를 모두 결박하여 성언포살(聲言砲殺)하고 해리(該里)에 사는 이훈식(李勳植)을 칭위지로(稱爲指路)하고 아울러 3인을 이끌고 인천군 도리현으로 갔기에 사탐(査探次)하기 위하여 순사 2인을 그곳으로 파견하였다.⁶²⁾

의병전쟁 격화에 따라 시흥도 상당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였다. 의병론자들은 근대교육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인 교사에 대한 적개심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곳 일어학교 일본인 교사에 대한 응징은 당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⁶³⁾

이는 용산 청목(靑木)병원에 근무하는 통감부 철도관리국 촉탁의 소견에서 엿볼 수 있다.

당 36세. 우(일본인 피해자)는 한국 경기도 안산군 논곡리 일어원증학교(日語援證學校) 교사로 근무하며 한편 매약상(賣藥商)을 경영하고 있었던 바라. 본년 10월 11일 밤 숙면(熟睡)하고 있었던 바 오전 5시경 비상히 소요하여 깨어보니 이미 적 20명은 압파(押破)하고 베개를 발로 차서 거꾸로 하고 손에 손에 칼을 빼어 번득이며 총구를 향하여 빈번히 협박한 후 생각하지 않고 두 사람을 마구 구타하였다. 드디어 포박하여 동리 이주사(李主事)의 마당 앞에 끌어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남김없이 가내를 수색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은 모조리

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3일 잡보 「派巡查探」.

63) 국사편찬위원회, 「右는 韓國 京畿道 安山郡 論谷里 日語援證學校教師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의병편 I)』 8 참조.

약탈했다. 또한 부근의 한인 부자(富者)를 모아 역시 구타 협박을 하고 금품 총포를 강탈하고 음식물을 탐(貪)하고 동일 오전 12시경 돌아갈 무렵에 우리들을 죽도록 난타하였다. 동교감 이훈직(李勳植), 부근 한인들과 부녀자 등이 이 비참한 상태를 보고 일본인의 생명만은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완강히 차에 응치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욕하여 아등(我等)을 끌고 1여 리의 산로(山路)를 가면서 때리는 등 지옥의 채고(責苦) 실로 참담을 극(極)하여 인근 도리촌(桃李村)에 이르러 집의 마당 앞에 앉으라고 명하였다. 잠시 나의 재류지(在留地) 논곡리로부터 한국인 3인이 서장(書狀)을 지참하여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일본인 이 교사를 살해하면 일본병사가 와서 이 논곡리의 집들을 소각하고 주민들을 살해할 지도 모른다”고 담판하여 돈 40원을 주기로 하고 생명 구조를 요청한 바에 응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사일생으로 위협에서 벗어나 동일 오후 3시경 소생(蘇生)의 생각을 하고 언덕길을 지나 기차로 다음날 12일 오후 7시경 용산 앵정(櫻町) 청목병원 내에 피난하였다. 손해품 견적가 등은 좌기와 같음으로 이에 제출한다.⁶⁴⁾

매약상을 경영하며 시흥에서 일어학교를 운영하던 이들은 의병진 공격을 받아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다. 일어학교 교감 이훈직과 동리 부녀자들은 애원을 거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도리촌 주민 3명의 설득에 의하여 부부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 이들은 야트막한 산길을 택하여 기차역으로 가서 용산 청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가 입은 피해액은 1,020원 30전에 달하는 거금이였다.⁶⁵⁾

한편 의병진이 지나간 후에는 주민들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 다반사로 자행되었다. 만약 일본인을 살해했다면 논곡리 주민들도 무사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일어학교 교감이자 논곡리 주민인 이훈직 설득으로 논곡리 주민들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지방관은 의병진 습격이나 일본군 보복으로 지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⁶⁶⁾ 이에 의병부대는 일본인이나 친일부호는 물론 이들을 비호하는 행정관청까지 공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와리면 무곡리에 들어온 의병부대는 “우리는 장차 인천항으로 갈 것인데 군수품이 부족함으로 부민의 이름을 모두 적어내라.”고 성언하였다.

주민들 소망과 달리 의병전쟁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점증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일제 침략에 대한 결사항전은 소규모 부대에 의한 게릴라전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활동 근거지는 일본군사령부나 통감부가 주둔한 서울 인

64) 국사편찬위원회, 「戶主 平民」,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6, 1907.

65) 국사편찬위원회, 「賊襲來 被害申告」,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의병편XII)』 19.

66) 차선훈,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③-시흥의 근현대』, 92쪽.

근 지역과 개항장 등지였다. 다음 기사는 시흥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괴(首魁) 불명의 적도(賊徒-의병을 지칭) 9명이 각각 총기를 휴대하고 본월(10월) 19일 오후 6시경 부내 안산군 와리면 무곡리에 내(來)하여 윤시종 탁가(尹侍從 琢家)에 침입 주인 부자를 제박(制縛) 구타하고 중상을 입힌 후 동시에 신화 100원, 명주 20척 외 8점의 물품을 강탈 도주하였으므로 동지 주재순사가 추적하였으나 기 종적을 실(失)한 지(旨) 안산주재 순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우 보고함.⁶⁷⁾

의병진 출현에 의한 군자금이나 군수품 요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국권수호를 위한 의병진 활동에 호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제침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탄압도 적지 않았다. 일제는 일진회 등 친일세력을 동원하여 불신감을 조장과 아울러 갈등을 부추기는데 혈안이였다. 자위단(自衛團)에 의한 의병진과 민중 사이에 연대를 철저히 차단하였다.⁶⁸⁾

주민들 바램과 달리 의병전쟁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일제 침략에 대한 결사항전은 소규모 부대에 의한 게릴라전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활동 근거지는 일본군사령부나 통감부가 주둔한 서울 인근이었다. 이른바 13도창의군에 의한 서울 진공작전은 당시 의병진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67) 국사편찬위원회, 「賊徒來襲의 件 報告」,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의병편 II』 12, 1908.10.
68) 홍영기, 「1907~1908년 일제의 자위단 조직과 한국인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 이용창, 「일진회와 자위단의 의병 사냥」, 『내일을 여는 역사』 30, 서해문집, 2007.

<참고문헌>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공립신보』.
김순덕, 「후기 의병운동」,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김형목, 『김광제, 나랏빛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도서출판 선인, 2012.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경인문화사, 2016.
김형목, 「한말 시흥농민운동에 관한」, 『중앙사론』 6, 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1889.
김형목, 「한말 경기지역 야학운동의 배경과 실태」, 『중앙사론』 10·11합집, 중앙사학연구회, 1989.
김형목, 「1898년 시흥농민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김호일 편저, 『한국근현대이행기 사회연구』, 신서원, 2000.
김형목, 「대한제국기 인천지역 근대교육운동 주체와 성격」, 『인천학연구』 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김형목, 「식민지 교육정책과 경기도내 교육실태」, 『경기도사(일제강점기)』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김형목, 「안산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이것이 안산이다-안산학 리포트 VII / 안산툏아보기』, 안산학연구원, 2016.
김형목, 「한말 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것이 안산이다-안산학 리포트 VIII / 안산툏아보기』, 안산학연구원, 2017.
이상근,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인천학연구』 2-1, 인천학연구원, 2003.
이영호,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시흥시사 ㉓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차선희, 「국채보상운동」,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차선희,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시흥시사 ㉓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차선희,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 ㉓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논평문

김치성

(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논평문

김치성¹⁾

논평 : 시흥시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

들어가며

이 글(이하 발표문)은 시흥시 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배경으로서 현재의 시흥시 또는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펼쳐졌던 국권회복운동(의병활동, 근대 교육 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배경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해로는 1911년의 신해혁명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등이 전 세계의 피압박 민족 운동의 불길을 지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던 민족자결주의가 식민지 약소민족의 민족 해방 운동을 고무시켰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1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일제의 무단통치와 맞물려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2·8 독립선언과 고종황제의 붕어를 계기로 3·1 만세 운동이 계획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²⁾

발표문에서 김형목 선생님(이하 발표자)께서 다루고 계신 내용은 시흥시 지역 3·1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3·1 만세 시위가 촉발되기 전,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전개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논평자는 지역사 연구에 몸담고 있기는 하지만, 근현대사 전공자가 아니므로 토론을 이어갈 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표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전공자로서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

1) 시흥시 향토자료실 상임위원

2) 3·1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점 제위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발표문을 작성하심에 있어 자료적 제약과 시간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서술하신 내용 중에서 시흥시 근현대 행정구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관련 분야 전공자인 발표자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독자들이 발표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발표문의 서두에 ‘시흥인들도 변화를 모색하다’라는 장 제목 하에 1898년과 1904년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농민항쟁을 시흥 지역 사회에 나타나는 변화의 바람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바, 우리시 지역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처음 ‘시흥군’에 편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북부 지역은 인천부에, 남부 지역은 안산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여기에 인용된 『시흥군민요양사안』(奎26138)과 『시흥직산안핵사주본』(奎17147)은 우리시 지역의 변화 모색의 양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료에서 지칭하는 ‘시흥’이란 원 시흥 지역인 현재의 서울 금천구 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민항쟁을 기존의 신분제 및 경제 체제에 대한 저항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해 그 경향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간접적인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시 지역에 속했던 인천부의 황등천면, 전반면, 신현면과 안산군 초산면, 마유면의 유사한 농민 항쟁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

다음으로 2장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다’에서 개신교의 유입과 민중층의 저항(수적·화적 등의 출현)을 설명하셨는데, 1897년 리덕(李德) 목사의 세례 사례는 현 안산시 지역의 유입 사례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의 시흥시 지역 사례로는 1898년 설립된 무지내교회(인천부 전반면)와 1900년 설립된 미산교회(인천부 신현면)를 들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가 미진하나 무지내교회의 경우, 무지리여학교, 흥업강습소 등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³⁾, 미산교회의 경우에도 한글이나 구구단 등을 교회에서 배웠다는 증언이 있어⁴⁾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맥락이 달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산 방죽포의 흥덕순 사례의 경우, 방죽포의 정확한 위치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독립신문』 1897년 7월 8일 잡보 기사에 의하면 당시 흥덕순을 체포하러 온 차사가 남양군에서 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시흥시 지역의 사례는 아닌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3

3장 ‘근대교육운동 참여로 사회적인 책무를 자각하다’에서 예로 들어주신 안산공립소학교(1899년)와 초지보통학교(1906년)의 경우는 모두 현 안산시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시기가 우리시 지역이 ‘시흥군’에 편입되기 이전이므로 해당 내용을 폭넓게 해석할 때, 우리시 지역도 그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발표자의 논지 전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초지보통학교에 대하여는 특히 일정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계시므로 이 내용이 현 시흥시 지역과 구별됨을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표 1> 대한제국기 시흥시의 근대 교육기관 현황’중 현 시흥시 지역의 내용을 다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학교명	소재지	현재 행정구역
1906	(사립학교)	인천 황등천면 중림	시흥시 과림동
1907	일어학교 (일어원중학교)	안산 초산면 논곡	시흥시 논곡동
1908	창흥측량학교	인천 황등천면 두곡리	시흥시 과림동
	홍인의숙	인천 신현면 국동	시흥시 신현동
	진명의숙	인천 신현면	시흥시 신현동

3) 리진호, 『무지내교회 104년사』, 무지내교회, 2002, 53쪽 및 63쪽.

4) 『요셉의 양식창고 117년』 -미산교회 117년사-, 미산교회, 2017, 140쪽.

<표 1> 중 현재의 시흥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위 5개이며, 현황표의 나머지 7개 사례는 현 안산시 지역에 해당하니 독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장 ‘나랏빛 청산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다’ 부분 관련입니다. 이 장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그 일환으로 시흥시 지역과 그 인근에서 모집된 의연금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역 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 2> 시흥시 국채보상 의연금 모집현황’은 1907년의 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현 시흥시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명	동리명	참여인원	모금액	현재 행정구역
초산면	목암리	신현요 등 12명	7원 70전	시흥시 목감동
	상직동리	박관춘 등 36명	20원 40전	시흥시 하상동
	하중리	이연직 등 51명	27원 55전	시흥시 하중동
	관곡금송계	장덕진	20원	시흥시 하중동
	조남리	신정휴 등 26명	9원 60전	시흥시 조남동
	조남리	최하석 등 27명	6원 40전	시흥시 조남동
	하중리	김홍겸 등 45명	21원 37전	시흥시 하중동
	제청리	장관진 등 27명	10원 40전	시흥시 조남동
인화면	화정리	윤종선 등 리중	15원	시흥시 화정동 (안산시 포함)
마유면	장상리	리중	15원 25전	시흥시 장현동
	장상두일리	권희용 등 25명	15원 25전	시흥시 장현동
	장종리	이종화 등 18명	6원 80전	시흥시 장현동
	도촌리	이윤실 등 13명	2원 80전	시흥시 장곡동
	조현리	김형식 등 59명	37원 10전	시흥시 장현동
	죽율리	김성현 등 73명	20원	시흥시 죽율동
	응곡리	이건섭 등 33명	당오 620냥	시흥시 장곡동
	장상리	이종태 등 20명	10원 95전	시흥시 장현동
	구지정	당윤주 등 동중	6원 20전	시흥시 군자동

이상과 같이 <표 2>에 제시된 41개 사례 중 현 시흥시에 해당하는 것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8개 사례입니다. 혹시 이 발표문의 독자들이 41개 사례를 <표 2>의 제목대로 모두 시흥시 사례로 혼동할까 하여 다시 구분한 것입니다.

나오며

5장 ‘구국운동의 현장인 의병전쟁을 경험하다’에서는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의 사례와 안산군 와리면 무곡리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현 시흥시 논곡동이고, 후자는 현 안산시 초지동의 사례입니다.⁵⁾ ‘들어가며’에

서 언급한 것처럼 발표문에서 다루어지는 시기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에 해당되므로 현재의 시흥시가 북부 지역(인천부)과 남부 지역(안산군)이 서로 다른 지방 체제 하에 편제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옛 안산군의 현황을 함께 살펴볼 때, 관련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조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문을 정리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발표문에서 ‘시흥시’라는 현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독자들을 위해 ‘옛 인천부 중에서 오늘날의 시흥시 영역’, ‘옛 안산군 중에서 오늘날의 시흥시 영역’이라는 최소한의 구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 발표자에게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논평자가 이 분야에 학식이 부족하여 끝으로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생업에서 이탈한 도적 폐의 사례(2장)와 의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습격 사례(5장)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혹은 군자금 마련을 위한 금품 탈취 등을 의병 활동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또는 관련 연구를 통해 의병 활동으로서의 계통성이 밝혀진 경우를 의병 활동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적 폐의 사례로 보는지 독립운동사 학계의 일반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겉보기에는 도둑질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상은 의병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거꾸로, 외형적으로는 의병 활동 자금이나 독립운동 자금 모집 내지 확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도둑질을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족을 하나 덧붙인다면, 넓게 보면 시흥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근대 교육 운동, 국채보상운동, 의병 운동 등이 총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형성하여 3·1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지당하다 하겠으나, 본 발표문이 관련 인물이나 활동, 계기적 사건 등의 측면에서 시흥시 지역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30일 수암면 만세시위나 4월 4일 군자면 만세시위와의 인과적 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1운동 이전 시흥시와 주변 지역의 국권회복운동”으로 제목을 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외의 오늘날 시흥시 관내의 의병운동 관련 사례는, 차선혜, 「지역사회의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시흥시사3』-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89~95쪽 참조

권희(權禧)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 독립만세운동

김규성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장)

권희(權禧)의 생애와 시흥지역 3.1만세운동

김규성¹⁾

■ 목차

머리말

- I. 우리고장의 자랑-애국청년 권희
 - II. 권희의 3.1독립만세운동 계획
 - III. 일경에 좌초된 4.7독립만세운동
 - IV.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변화의 역사
 - V. 소작인 농민운동과 낭지주 송덕비
- 맺는말

머리말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제에 대한 시민 불복종운동(不服從運動)이었다. 이것은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3·1독립선언, 3·1혁명[5], 3·1만세운동, 기미독립운동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²⁾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은 ‘대한독립만세(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武斷統治)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민중과 지식인의 반항을 일으켜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하였다.³⁾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원에서 시작되더니, 3월 30일 수암면 비석거리

1)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장

2) 항일무장 독립투쟁사, 도서출판 일원, 1999.

3) 누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이투스, 2012.

시위, 4월 4일 도일시장 시위로 번져 나갔다. 지방도시와 농촌시골마을에 까지 확산된 만세운동은 시위가 끝난 뒤에도 그 열기는 꺼지지 않고 각종 후원회 및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민족 학교교육기관,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단체, 의열단 등의 무장 레지스탕스, 독립군이 탄생했으며 종내에는 현대 한국의 모체(母體)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었다.

이 3.1 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으며, 이념, 계층 차이를 넘어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민족대표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독립군 무장투쟁을 위한 군자금모금운동,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운동, 빈곤탈피 농민, 노동 운동 등, 여러 형태로 국권회복의 독립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⁴⁾

이 같은 역사상 최대의 민족독립운동이었지만 그 한계로서 비폭력적으로 진행된 운동이었으나 독립(獨立)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6년 후 8.15를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주었으며, 세계 다른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예- 중국의 5.4운동 등)⁵⁾

시흥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있었으나 일경에 체포되어 방면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시흥시 장현동 두일 마을의 권희 선생의 경우는 시위를 계획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에서 어린 나이에 다른 현장시위주동자 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언도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출감후의 소작인 농민운동은 또 다른 독립운동의 모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잊혀져가는 시흥지역 3.1운동의 인물발굴의 의미를 갖는다. 애국청년 권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밝히는 것은 향토 3.1운동사

4)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학연구소 지음, 서해문집, 2004.

5) 먼나라 이웃나라 13 : 중국 1 근대 편. 김영사. ISBN, '먼나라 이웃나라' 중국편 (48) 5·4 운동의 의의, 민중이 일어서다

를 바르게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기리 남기고자 하는데 있다.

‘한 인간이 인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세상을 떠난 후 관 뚜껑에 못을 박고난 후에야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인물이 죽음과 더불어 의미가 없이 잊혀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더욱 음미되고 평가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세상 떠난지 60년이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독립운동가로 우리 고장의 선각자 권희(權禧) 선생을 기억하며 새롭게 조명되어 추앙받아야 할 분이다.

우리 지역에서 잊혀져가는 인물을 찾아 발굴, 평가하는 뜻에서 짧은 권희 선생의 생애와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해야할 의무를 지고 향토사를 다시 쓰는 심정이다.

이분에 대한 자료는 1957년에 57세로 별세한 후 지금 일제 때의 재판기록과 이분을 기억하는 친인척 몇 분의 기억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권희 선생의 종중동생 되는 권창(88세)님과 장곡동의 생질되는 권용재(87세)님과 종중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존경받으셨던 권돈행(98세/일명 도사님) 어르신들이 고령인데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인터뷰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⁶⁾

특히 권돈행 어르신은 권희 선생에 대해 권씨 문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였으나, 2년 전에 인터뷰 기간 중 갑자기 노환으로 작고하심으로 계속된 인터뷰가 중단됨으로서 귀중한 생애 역사기록도 지장을 받게 되어 안타깝다. 그래서 “한 어르신의 죽음은 곧,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는 말과 같이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을 자인하고 있다.

필자가 권희 선생의 생애기록을 정리하면서, 이것은 단편적인 기초연구에 불과한 문헌기록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후학연구자들의 기초를 놓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 권씨 문중의 최고령 권돈행(98세/일명-도사) 님과 권창(87세)님은 권희선생의 종친아우 되시며, 권용재(86세)님과 권용학(74세)님, 권용건(80세)등, 조카들을 인터뷰하여 종합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분들은 고령으로 0-60년전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본 내용 중에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혀둔다. 이제 숙한 부분은 후기연구자들의 수정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I. 우리고장의 자랑- 애국청년 권희

1) 산촌마을 어린 시절의 배경

장현동 안두일(너분들) 마을은 군자봉에서 서북쪽으로 힘차게 뻗어 나온 산줄기로 정기가 넘쳐 솟아난 옥녀봉 아래의 작은 마을이다. 옥녀봉에서 작고개로 가는 길옆은 삼태기처럼 분지를 이루어 서북쪽만이 밖으로 통하는 길목 외에는 산으로 둘러져 있다. 작고개로 가는 언덕 넘어는 군자동 구준물이다. 동편에는 두일(능곡동 밖두일)로 넘어가는 큰 고개가 막혀있다.

이 마을은 약 30가구가 안동권씨 집성촌으로서 외부로 통하는 새재, 장곡동매골, 진마루 마을로 통하는 평지길이 있을 따름이다. 외지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외지로 나가려면 두일고개를 넘어야 능곡동 두일 삼거리, 능골 목실을 갈수 있다. 군자동 구준물, 도일쪽으로 나가려면 작고개를 넘어야 했다.⁷⁾

권씨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밖두일쪽에 오래전 안동권씨들이 모여 살면서 나이든 자제들이 분가를 안두일 마을로 살림을 차림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이곳 마을의 논과 밭은 제한되어 많은 농토를 소유할 수 없어 형편이 퍼지면 외지로 나가 더 큰 농토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권희 선생댁은 할아버지 때부터 안동권씨 뼈대 있는 양반집 가통을 이어받아 엄격한 유교전통가문의 권씨 문중회장어르신이었다. 댁의 사랑방별채에는 항상 서당훈장님을 모셔다가 서당(오늘의 초등학교)을 열어 문중자녀들과 동네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유일한 학교였다.

권희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엄격한 가풍에 따라 4살 때부터 천자문을 깨우치고 소학과 명심보감까지 읽어 내려갔으며 5~6세 때 이미 책을 덮어놓고 모두 암송할 정도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재동이였다. 8세 이후에는 서당에서 《사략》, 《대학》, 《중용》, 《맹자》, 《고문진보》 등을

7) 시흥시지명유래, 시흥문화원, 2006.

배웠으며 한시와 부(賦)를 지었다. 그 뒤 한시 백일장에서 장원하여 신동으로 알려졌다. 마른체구에 흰칠하게 자라는 귀공자 타입 이었으며, 동네문중과 매골, 진마루, 새재, 구지정 마을 등에서는 권 도령으로 통했다.⁸⁾

안두일 동네는 산촌마을이다. 이동수단은 소달구지에 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고, 주로 걸어 다니는 도보가 이동수단이었다. 어린 소년기 때는 서당 글공부가 끝나면 친구들과 옥녀봉에 올라 밤, 도토리 줍기, 산새알 꺼내기, 비둘기새끼, 때까치새끼 꺼내오기, 가재잡기 등 이었다.

한번은 친구들과 비둘기 새끼를 꺼내오는데 어미새가 따라오며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비둘기 둥지에 다시 올려놓고 오면서 “비둘기 엄마를 보고 새끼를 뺏을 수 없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한 후 다시는 새둥지를 기웃거리지 않았으며, 친구들을 적극 만류하였다고 한다.

어미를 찾는 작은 새끼들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며 친구들을 말렸다는 것은 깊은 인간의 도리를 설명하고도 남는다. 매일 서당에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인(仁)’ 과 ‘자애(慈愛)’를 거울삼는 작은 실천이 어린 권도령에게서 풍겨 나오는 듯하다.

평화로운 시골산촌 안두일 마을에서 성장한 이 소년은 소학교를 가지 않고 마을서당 훈장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일생일대에 큰 영향을 받은 듯하다.⁹⁾

할아버지 때부터 권씨 문중의 어른으로서 내외에 조선의 선비다운 강직성이 돋보였다. 할아버지의 사랑방에는 항상 의관을 차려입은, 낙향한 손님 선비들이 찾아오면 차를 마시면서 한 시조를 읊조리는 풍경을 자주 보아온 권도령 이었다.

그리고 집 별채에는 유학글방 훈장선생을 모셔다가 서당을 열어 손자들과 문중자제들은 물론 동네 가난한 농민 자제들 까지 글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였다. 권도령도 학동으로서 한집에서 생활하는 훈장선생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 훈장이 선우장 권행(衍) 선생으로서 종종 내 권창 어른신의 조부

8) 대한독립의사 권희선생 비문(장현동 가족묘 비문)

9) 권희선생의 조카 권용재님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함.

가 된다.¹⁰⁾

당시엔 어린 소년이지만 찾아온 손님들과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누시는 말씀 중에 타 민족에 의해 나를 빼앗겨 울분을 토해내는 선비들의 말도 들렸다. 약한 백성의 한 맺힌 설움을 이 사랑방에 와서 비분강개하는 선비들의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찾아온 손님들과 훈장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고 절망과 한숨을 토해내는 데는 권 도령도 나이가 들수록 ‘나’ 와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

2) 나라를 빼앗긴(국권침탈) 시대적 배경¹¹⁾

권희 선생이 태어난 1900년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바로 그해다. 일본은 강압정치로 나서면서 독립운동가 검거, 언론 폐쇄, 종교 탄압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등의 무단통치를 시행하였다. 1910년대 농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85%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때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통치와 봉건적인 수탈, 고율의 소작료, 내외의 부르주아적 계급에 의한 이중삼중의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소작농가는 약 100만 호로 전체 농가의 38%에 달하였고, 자소작(自小作) 농가는 104만여 호로 약 39%였다. 따라서 소작에 묶여 있는 전체 농가는 우리나라 총 농가의 77%에 이르렀다. 당시 소작료 형태는 정조(定租)·잡조(雜租)·타조(打租)가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수확량의 50~80%를 현물로 바치는 고율의 지대(地代)였다.

소작농들은 고율 현물 소작료 외에도 지세(地稅)와 수세(水稅), 비료대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기에 마름[舍音]에 의한 중간 수탈까지 당해야 했다. 또한 농민들이 예로부터 소유해 오던 권리인 도지권(賭地權)·입회권(入會權)·영소작권(永小作權) 등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토지 상실과 토지로부터의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10) 권창 님으로부터 인터뷰에서 진술함

11) 『한국민족운동사』, 최경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5.

뿐만 아니라 무단통치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우리 농민들의 농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각종 조세 부담이 농업경영을 곤란케 하였는데, 당시 농민들에게 부과된 조세는 지세(地稅)·호세(戶稅)·부가세(附加稅)·시장세(市場稅)·연초세(煙草稅)·주세(酒稅) 및 기타 각종 조합비 등이었다. 이 결과 1915년 농가 1호당 조세 부담액이 6,082원이던 것이 1919~20년에는 13,364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수탈행위가 극에 달할 때였다(당시 쌀1가마에 50 원).¹²⁾

3) 3.1 독립만세운동의 발단¹³⁾

국권회복을 위한 민중 저항운동으로서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격렬하게 전개된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을 거치면서 민중은 민족독립운동의 주도세력,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민중은 근대적 변혁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민중들의 한계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과 그 이후의 의병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1운동은 많은 수의 민중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민족운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당시 민중은 민주주의 변혁 운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큼 역량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민중이 주력군(主力軍)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약소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때 고종이 갑자기 서거하자 일제가 독살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12) 한국사 21, 3.1 운동 전후의 사회와 경제』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8.

13)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경태, 1994.

온 국민은 망국의 설움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크게 동요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서울의 태화관(泰和館)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하여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경기도 당시 행정 구역상 시흥군에서는 경기도 지역 중 가장 많은 횡수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우리 지역도 도시로부터 점차 농촌 지역으로 파급되며 3월 하순부터 농민이 시위의 주역을 이루었다. 또한 시흥의 시위 주동자들도 특정한 지도사상이나 정치결사체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전개된 운동이 아니라,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 방법을 통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그해 5월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전개되었다. 3·1운동의 목적은 민족 자주와 국권 회복에 있었다.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민족사적으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평화적으로 알렸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4) 시흥지역의 3·1 만세운동

3·1운동은 서울에서 봉기하여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3월 1일 당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봉기하였고, 이후에는 철도 연선을 따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읍·면·이(里)와 산간 벽지로 파급되었다. 그리고 각계의 운동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으며, 지방의 대부분은 장날을 기하여 발생하여 5일, 10일 간격으로 되풀이되었다.¹⁴⁾

3·1운동의 주체는 예외는 있으나 주로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였으며, 이에 농민 계층이 가담함으로써 순식간에 전국적 민족운동으로 파급되었다. 처음 3월 상순에는 평화적인 만세시위로 전개되었으나 3월 하순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무력시위로 변해 갔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가 과격화된

14) 한국 민족운동사』, 나남, 조지훈, 1993.

이유는 일제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시위대의 감정이 격화된 때문이었다. 시위군중의 무차별 체포와 투옥은 시위대를 흥분시켰다.

군중들이 체포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자 일제 군경들은 시위군중에게 무기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 양상은 무력시위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시위 군중에 대한 일본 군경의 발표는 군중을 극도로 자극하여 경찰서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우편소 등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습격·파괴·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이 일제에 의해 희생되었다.

(1) 비립동의 독립만세운동¹⁵⁾

비립동(비석거리-碑立洞)은 조선 시대에는 안산군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시흥군 수암면 소재지로서 안산초등학교와 수암농협 사이가 된다. 이곳에는 역대 안산군수의 공덕비가 있어 흔히 ‘비립동(碑立洞)’이라 부른다. 이들 공덕비는 1988년 이곳에서 북쪽으로 3백여 미터 떨어진 과거의 동사무소 앞으로 옮겼다.

비립동 주변은 조선 시대 안산군 관아 및 시장(市場)을 비롯하여 가까운 인근에 향교(鄕校)·여단·사직단(社稷壇) 등이 있어 명실상부한 안산군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이곳에서의 만세시위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시흥군에서 가장 많은 시위자는 수암면의 19개 동리 약 2000여 명의 주민들은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각각 지휘자의 인도 아래 우선 집합장소인 비립동에 모여 만세를 힘차게 불러 기세를 올렸다. 당시 인도자는 유익수(柳益秀;부곡동 출신)·윤동욱(尹東旭;산현동 출신)·윤병소(尹秉昭;능곡동 출신)·홍순칠(洪淳七;와동 출신) 등으로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이끌고 경찰관주재소·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향교 등을 돌았다.

유익수는 월피동 집에서 성포리 구장이 인솔하는 시위행렬과 함께 비립동

15)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자료집

까지 갔을 때였다. 이때 성포리 구장이 유익수에게 당부한다.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오.

만일 주재소라도 습격하면 큰일이오.

당신이 알아서 군중을 지휘하면 염려가 없을 것이오.”

유익수는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 도살장까지 갔다. 이때 왜경이

“읍내로 들어가지 말고 해산하라.”

강하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으나 유익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 앞에 서서 읍내로 들어가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날 수암면 와동의 흥순칠은 임학신(林學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기 마을 사람들 30여 명과 함께 읍내로 들어왔다. 한편 윤동욱은 산현리 주민들과 같이 읍내로 들어가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보통학교(현 안산초 등) 앞에서 조선순사 임건호(任健鎬)를 만나자

“너도 조선 사람이니 만세를 불러라. 관리가 부르면 군중이 따라간다.”

하며 강요하였으나 임건호는 끝내 불응하였다 한다. 또한 김병권(金秉權) 등 화정리 주민 30여 명도 이 날 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군중은 수암면 읍내에 있는 면사무소, 보통학교, 공자묘(孔子廟) 앞으로 몰려가서 더욱더 항쟁의 기치를 올렸다. 이때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던 유익수(柳益秀, 당시 50세)와 농민 윤병소(尹秉昭, 당시 27세)가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중을 이끌었다.

이날 시위에는 수암면의 18개 리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수암 순사주재소로 몰려들어 크고 작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쳐 댔다.¹⁶⁾

“수암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자. 태워버리자!”

이때 군중 앞에 불쑥 나선 한 젊은이가 외쳤다.

16) 안산문화원.안산향토사연구소.2008, 안산지역 3.1독립운동연구조사보고서 25- 35 쪽 참조

“안됩니다. 불로 태우면 안됩니다. 이 건물도 우리 조선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해방이 되면 모두 우리의 재산입니다. 진정하십시오.”

흥분한 시위 군중을 진정시킨 것은 키가 크고 건장하게 생긴 산현동의 운동육 청년이었다.

만세시위가 격화되자 일본경찰은 사격태세를 취하며 엄포를 놓아 시위군중들을 간신히 해산시켰다.

이 시위는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위가 일어나기 전날인 29일에 수암리의 비립동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테니 30일 날 그곳에 모이라는 격문이 집집마다 돌렸지만 발각되지 않았다.¹⁷⁾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쳤던 홍순철은 조선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날 국유지 소작인 수 명에게 격문의 내용을 알렸다.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지가 되니, 이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라며 소작인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격앙된 군중이 순사들에게도 만세를 부르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수암리 구장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자 구장 집에 몰려가 구장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국유지 소작인들까지 포함되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계층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만세운동 참여는 곧 생존권을 위한 직접적인 항거와 투쟁이었다.

(2) 거모리(도일시장)의 독립만세운동¹⁸⁾

거모리(去毛里)는 현재의 시흥시 거모동 도일시장으로 조선 시대에는 안

17) 안산문화원. 안산향토문화연구소. 2008. 안산지역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보고서. 참조

1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연구총서1 참조

산군의 서촌(西村)이었고, 일제 때에는 학교·면사무소·금융조합·시장·우체국 등 군자면의 행정 중심지였다.

1919년 4월 4일 원곡리(현 원곡동) 출신인 강은식(姜殷植)은 이곳에서 집합한 수백 명의 군중을 격려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또한 죽률리(현 죽률동) 출신 김천복(金千福)은 이 날 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연거푸 외쳤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으로 모입니다!”

주민 수십 명을 모아 거모리로 향하였는데 이때 일경의 총소리를 듣고 군중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강은식은 나머지 2,3명과 함께 옆길로 도일시장에 이르러 면사무소 및 주재소 부근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힘차게 외쳤다.

“ 조선독립만세! 독립만세! 조선독립 만세.! 만세, 만 만세!”

군자면(君子面) 지역은 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3월 29일, 원곡리와 죽률리 주민들은 4월 4일에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이 시위하였다.

II. 권희의 3.1독립만세운동 계획

1) 서당(書堂) 청년 유학도(儒學徒) 권희의 사상

우리민족 한 시대가 일제에 의해 종말을 고하려는 1900년대 역사적 전환기에, 그리고 민족의 독립적 생존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권희 청년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경우에 그러하듯이 인간의 사상이란 결국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기에 태어난 권희 청년은 고향마을의 서당(훈장-선우장 권행(權衍))에 다니면서 당시의 정규적인 한문교육을 받았다. 《소학》, 《통감》에서 시작하여 18세까지 사서삼경을 모두 배웠고, 틈틈이 《사상기》, 《삼국지》등의 희곡·소설 기타 잡서들도 읽었다고 한다. 이 방면에서도 그는 어려서부터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원래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과 학문적 재질이 뛰어나 서당에서는 훈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접장(接長)으로 학동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서당의 훈장선생은 문중에서 유학에 깊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우장의 훈도를 받았다. 선우장 권행 선생은 현재 생존하신 권장(87세) 어르신외의 조부로 알려져 있다.¹⁹⁾

훈장선생님으로부터 일본에 의해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강압무단정치의 노예생활을 하는 우리백성들의 뼈저린 말을 들을 때 마다 젊은 피가 끓곤 하였다.

‘약한 우리민족은 강자의 손에 의해 빼앗긴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면 영원한 노예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날 때 마다 마을 뒷산 옥려봉 중턱의 너럭바위에 누워 도토리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에 잠기곤 하였다.

안두일 산촌마을의 권희 청년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였으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마 두고만 볼 수 없는 피압박 식민지 못된 세상에 의욕을 잃고 살아가다가도 고전에서 찾는 경구를 읽다 보면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논어』 자한(子罕)편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한다. “3개 군단(1만2천5백×3)의 장수야 빼앗을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의지야 꺾을 수 없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라는 대목이 나온다.²⁰⁾

19) 권장(87세)은 권희의 종중 아우가 되며, 권희를 가르친 서당훈장 선우장의 손자가 된다. 선우장은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유학자로서 서당에서 후학을 가르친 선비로 종중에서 칭송하고 있다.

20) 『논어』 자한(子罕)편. “3개 군단(1만2천5백×3)의 장수야 빼앗을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의지야 꺾을 수 없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맹자』 등문공(滕文公) 하편에는 “천하의 광거(廣居:仁)에 살며 천하의 정위(正位:禮)에 서며 천하의 대도(大道:義)를 행해야 한다. 이에 뜻을 펴게 되면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라면 홀로 도(道)를 행(行)하면서 부귀에 아첨하지 않고, 가난한 빈곤에서도 지조(志操)를 바꾸지 않고, 무력적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라 말한다.”라는 호탕한 이야기가 나온다.²¹⁾

권희 청년은 위축되고 좌절감에 빠져있다가도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마음이 흥기되면서 어떤 욕구가 살아나려고도 했다. 다산의 『논어고금주』를 읽다 보면 필부의 의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를 맹자의 주장과 결부시켜 해석한 참신한 대목이 나온다. “의지를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은 부귀에도 아첨하지 않고 빈천에도 지조를 바꾸지 않으며 위협적인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말한다(不可奪志謂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라고 공자의 말씀과 맹자의 말씀을 합해서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힘을 지녔나를 의미 깊게 해석해주었다.

한 사람 인간이 지닌 굳은 의지가 그렇게 큰 위력을 지닌 것을 알게 되면 오늘의 세상에는 왜 그런 필부는 사라져가고 대장부는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한탄을 금할 수 없다. 3만7천5백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야 붙잡을 수 있지만, 한 개인의 굳은 의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은, 권희 청년이 3.1만세운동 거사에 실패한 후 입술을 깨물며 감방에서 곱씹었던 말이었다.

2) 장곡동 동지들과의 거사 모의

3월 중순경 할아버지 사랑방을 찾아온 나그네 선비들의 ‘3.1독립만세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난 기미년 3월1일 독립지사 민족대표 손병희선생을 위시하여 33인과 전 국민이 일시에 전국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침략자 일본

21) 『맹자』 등문공(滕文公) 하편 “천하의 광거(廣居:仁)에 살며 천하의 정위(正位:禮)에 서며 천하의 대도(大道:義)를 행해야 한다.

제국을 몰아내자“는 연설을 서당 방문선비들에게 전해 듣게 된다.

또한 서당 훈장님은 항상 생도들에게 이런 훈시를 하시곤 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래 일제치하에서 현재 삼천만 민족이 가혹한 고통과 막심한 치욕을 받고 있다.” 또한 “일제(日帝)에 의해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역사와 국어, 말과 재산과 우리이름과 문화, 우리의 얼(魂)을 빼앗겼다. 이제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훈시를 들을 때 마다 혼자만 알게 아니라 강압적인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다.

그 당시 서당의 어릴 때 친한 동문 장곡동의 장수산, 이종영, 이종진, 이종형, 이응수를 권청년의 집으로 모았다. 날씨는 3월 이라고는 하나 저녁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다. 골방에 따끈하게 불을 지펴놓고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먹으며 어릴 때 이야기의 꽃을 피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권 청년은 조용한 목소리로 경성에서 온 나그네 손님들에게서 들은

“지난 3월 1일 조선독립만세운동으로 손병희선생을 비롯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수만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시위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요지와 그동안 악랄한 일본침탈의 과정을 보아온 이들이었지만, 3.1운동 대표들이 일본 군경에 체포되었다는 얘기에 침묵이 흘렀다.

동네일에 적극적이며 감성적인 성격의 장수산이 먼저 입을 떼었다. “우리 백성이 남의 나라에 당하고만 살수 없다. 우리도 무엇인가 나서야 하지 않겠니. 나는 적극 찬동이다. 우리도 힘을 합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자.” 목소리가 커지자 진정시키면서 권희는 선비에게서 받은 작은 종이쪽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뿌려진 ‘독립선언문’ 전단이었으나 반쪽으로 찢어진 선언문 조각이었다.

한자 풀이를 해가며 낭독하는 그의 모습은 깊어가는 밤에 적막을 깨트리는 함성을 듣는 듯했다.

3) 반쪽으로 찢어진 조각난 독립선언서

己未 獨立宣言書(기미독립선언서)²²⁾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 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 의 誠忠(성충)을
습(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인류) 共存同生權(공존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뒷면에 구겨진 부분은 공약 3장

公約三章(공약 삼장)

22) 《주한일본공사관일기》, 1904년도본 (일우문고, 《매일독립선언》번역, 62~64면)

一.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舉(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이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一.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一.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해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 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朝鮮建國 4252년(1919) 3월 1일

朝鮮民族代表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4) 거사일은 4월 7일 정오 도일시장으로

사실 권 청년이 가장 어린 20세이고, 여기 모임 친구들은 20살 이상 된 농사꾼 들이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들은 여섯 명의 친구들은 모두 함께 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몇 가지 기본계획을 합의했다.

- * 독립만세는 일본경찰들과 조선인 밀정들이 절대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함.
- * 조선독립만세 거사일은 4월 7일 12시 정오로 함.
- * 거사장소는 군자면사무소가 있는 거모동 도일 우시장 앞으로 함.
- * 비밀통고문(사발통문)은 20 매 이상 권희가 작성할 것.
- * 작성된 사발통문은 5명이 나누어 동네 구장들에게 전달할 것.
- * 되도록 야간을 이용하여 집집마다 찾아가 거사일과 장소를 알릴 것.
- * 구 한국기를 각자 지참하지만, 3X2척 인솔자 국기 10개로 만들 것.
- * 비폭력 평화적 시위로 하되, 일본경찰이 폭력으로 나서도 대항하지 않는다.
- * 구호는 ‘조선독립만세’ ‘만세 만세, 독립만세’
‘일본군은 물러가라’ ‘자유조선 독립만세’ 로 한다.
- * 면사무소 앞에 모이면 국기대에 태극기를 먼저 게양한다.
- * 권희가 먼저 대중 앞에 서서 ‘일제압박을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 는 전국
으로 확산되는 독립만세취지를 연설하고, 찢어진 일부 선언서를 읽는다.
- * 장수산이 앞서 인솔하여 주재소, 금융조합, 군자국민학교까지 평화적 시
위 후 해산한다.
- * 군중이 모이면 군중심리로 흥분하여 폭력이 나올 수 있으니 불상사가 나
지 않도록 이응수와 이종영, 장수산이 인도한다.²³⁾

서당에서 훈장님에게 들어왔던 나라 잃은 백성의 통한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지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밤새도록 ‘비밀통고문’ 질긴 창호지에 쓰고 찢고 하기를 반복했다. 새벽 두시가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되었지만, 다음날 친구 장수산에게 먼저 보여 주며 고칠 것을 지적해 달라고 했다. “고칠 것도 뺄 것도 없다. 잘했어. 명문이다. 이제 모이게만 하면 된다.”란 칭찬에 새 힘을 얻게 된다.

‘비밀통고(秘密通告)’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합병된 이래로 받은

23) 독립운동 편찬위원회.1971.독립운동사 자료집

10년 간의 모진 학정에서 벗어나 이제 독립하려 한다.
경성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군자지역민들은 잠자고만 있을 터인가?
우리들도 이에 동조해 4월 7일 정오
군자면사무소 도일구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려 한다.
각 이민(里民)들은 태극기 1개씩을 휴대하고 모이라.
가자! 모이자! 조선독립만세장으로...! “24)

안두일 마을은 외진 곳이고 외부인의 왕래가 드문 산골마을 사람들만의 작은 동네다.

‘만세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없는 지역적인 천혜의 고장으로 보았다. 군자리와 장곡리 마을과는 약 1키로 정도 가까운 거리지만 작은 언덕을 넘는 길과 평지로 가는 길이 있었다.

이들은 모임 장소가 매일같이 권희 청년댁으로 모이면 어른들의 이상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4월 초부터는 권희네 집의 옷터골 장밭머리 두평도 안되는 원두막은 밤나무에 둘러싸인 후미진 곳이다. 여름 채미밭 원두막으로 쓰기도 하고, 농기구를 넣어두는 농막처럼 아래는 수수대를 엮어 영을 두른 방처럼 꾸민 곳이다. 비밀 모임장소로는 적격이었다.

비밀통고문을 동네 구장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비밀통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빠진 사람들은 후일에 위해를 당할 수 있다” 는 은근한 압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고문에는 없지만 구두로 전할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자고 했다.²⁵⁾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만세시위 사건에서 2,000명이 넘는 시흥군 수암의 비석거리 독립만세 시위 때에도 시위동원에서, 소작인들에게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소작농지는 전부 소작농민들 것이 된다. “참석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는 말에 따라 불참자를 가려내자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24) 독립운동 편찬위원회.1971.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25) 독립운동 편찬위원회. 1971. 앞의 책, 재판기록

Ⅲ. 일경에 좌초된 4.7독립만세운동

1) 윗터골 장밭머리 원두막의 결의

이들은 원두막 비밀장소에서 중형태극기를 그리기 위해 광목과 물감을 사다가 놓고 희미한 등잔물 밑에서 그리기도 했다. 낮에는 농사가 시작되는 봄에 밭갈이 논갈이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들 청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두막으로 모인다.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이었다.

거사일을 하루 앞둔 4월 6일이었다. 이들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후 3시쯤 원두막으로 모였으나 이종진은 아직 도착치 못했다. 만들어진 태극기는 2개밖에는 만들지 못했다. 각각 연락망을 점검하고 모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군자동 고개등성이를 넘어 도일시장으로 들어가 면사무소 앞의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우시장을 둘러봤다. 내일이 도일장날이므로 마침 잘 되었다. 다시 금융조합, 경찰주재소, 군자초등학교 마당, 도일우체국까지 돌아보았다.

권희와 청년들은 다시 원두막으로 돌아와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권희 청년은 비장한 어조로 말을 꺼낸다.

“지금 우리의 독립만세운동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거나 체포될 수도 있네. 이때에는 자네들은 권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전부 나에게 책임을 미루게. 그래야 내가 책임을 지고, 자네들은 문책이 없어야 하네. 이제 우리는 다시 못볼 수도 있네!” 그의 입가에는 어금니를 굳게 다문 미소가 흘렸으며, 눈에서는 광채가 나는 듯 했다.

이들은 둥글게 손을 맞잡고 일어서서 권희의 선창에 의해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만세” 맞잡은 채로 손을 올려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곳 옥려봉아래 골짜기에 울려 퍼진 최초의 독립만세였다.

이때 내일을 다짐하며 윗터골 장밭머리를 돌아 나설 때였다.

이상한 발자국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청년들이 있는 윗터골

로 검은 그림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몸을 숨길 사이도 없이 장밭머리에서 주재소 고등계순사 10명, 일본헌병대 10명이 무장한 채 포위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손을 들고 나와라. 안 나오면 발포하겠다.” “.....”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권희가 별떡 일어나 “나갑니다. 쏘지 마세요!” 다음은 장수산이 따랐다. 이종영, 이종진, 이종형, 이응수 도 일어났다. 이들 6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군자주재소 유치장에 한밤을 지새우게 된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만세운동자 체포소식에 장현동, 장곡동 동리가 발칵 뒤집혔다. 권씨 문중과 장씨, 이씨 문중에서는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시국사범으로 걸렸으니 일제하 강권통치하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다만 문중대표와 부모들이 군자주재소를 방문하였으나 범법자들이라고 하여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군자주재소장을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애들이니 선처를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가 전부였다.

다음날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수원 경찰서로 이용되었다.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사실 이들은 현행범도 아니다. 만세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일본경찰과 직접 대항하여 무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군자시장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체포하여 구금을 계속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본 경찰을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무서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을 쓰는 것은 비밀비재 했다. 이들은 경찰서 근방에도 가보지 못한 시골 순박이들이다.

나이가 들었지만 경찰의 위압에 눌러 별별 떨며 눈물을 짜고 있는 이종진을 지목하여, 취조실로 불러 들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 온거지? 저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잡힌거지?.....” 고등계 형사는 회유하기 시작했다. “네네..” 종진은 제정신이 아니다.

“오늘 묻는 말에 거짓말로 대답하면 10년 이상도 감옥에서 썩어야 해. 제대로 대답할 때 까지-저기 천정 보이지, 거꾸로 매달고 이 채찍으로 맞아 살이 찢어져 죽을 수도 있어-” 경찰의 위협에 다리를 떨며 울고 있었다. 그렇다고 모두 토설할 수는 없었다.

묶여진 의자를 걷어차자 의자채 넘어졌다. 넘어진 종진을 어서 일어나 하면서 정강이를 구두발로 차면서 옆에 있던 가죽채찍으로 후려쳤다. 이마에서 피가 흐른다. 태어나 생전처음 받아보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 대답만 잘하면 내일 당장 집에 보내줄 수 있다. 너는 죄가 없어.....”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범죄 심리를 알고 있는 고등계 형사의 고도의 심리전법이었다.

이 종진은 권희의 집에서부터 ‘비밀통고문’ 작성, 면민 독립만세동원계획 등을 낱낱이 진술하고 말았다. 한 마을의 젊은이들에 의해 계획된 독립만세 운동계획은 이로서 일망타진된 것이다. 종진이는 증거물로 ‘비밀통고문’과 그리다 만 태극기를 경찰에 자진 제공하고 말았다.²⁶⁾

2) 권희 청년에게 가해진 일제의 고문

일본 고등계 베테랑 형사로 10년 이상의 악랄한 다나까 형사는 취조실로 끌려온 권희에게 겁박을 주기 시작했다. “권희 네가 숨김없이 진술하면 신사적인 취조가 되겠지만, 거짓이 있으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희는 마른 체격이지만 정신만은 뚜렷했다.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주먹에는 땀이 흘렀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이번 만세운동계획은 모두 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같이 온 친구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끌어드린 것이니, 돌려보내 주시요” 이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실로 그의 뜻에 동조한 그들이 무슨 죄가 있던 말인가? 비록 거사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보다 괴로웠다.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정당당하게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숨김없이 말하면 풀어줄 수 있다. 너의 독립만세 목

26) 독립운동 편찬원학회. 1971. 앞의 책, 재판기록

적이 뭐냐?”

“지금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3.1독립만세운동을 우리 시흥지역에서도 동참하기 위해서요.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조선백성들이 나서는 것이 어찌 잘못이요” 당당하고 뚜렷하게 대답했다. 다 나까 형사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별떡 일어나 “이 새끼 나이도 어린것이 무엇이 어때?.....”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난타한 것이다 코피가 터졌다. 묶인 양손을 천정에 매달고 옷을 벗겼다. 채찍과 곤봉으로 난타를 당한 후 정신을 잃었다. 바게스에 물 한 동이를 머리에서부터 부어 씻는다.

다시 정신을 차리니 이미 칠성판 고문대에 묶여있었다.

“그래 다시 묻는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세를 부르려 했느냐. 너의 윗선은 누구냐?” 반복하여 심문했다.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일 없소. 내가 나에게 시킨 것이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요.”

얼굴에 수건이 덮여지더니 주전자로 입과 코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폐로 들어간 물은 기침이 나고 입으로 들어간 물은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또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깨어난 후 다음날도 계속 고문이 시작되었다.

거꾸로 매달아 개 패듯 몽둥이로 치더니 주전자로 물을 코로 부어 먹였다.

“누구의 지시냐? 독립운동자의 이름을 대라. 지령자는 누구냐?”

갇은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구두발로 걷어차인 복부고통으로 혈변을 1주 동안이나 누어야 했고, 피 섞인 오줌을 한 달 이상 보았지만 병원이나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가족면회도 일체 금지한 사상범으로 취급했다.²⁷⁾

아마 이때 얻은 질환으로 결혼 후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신체결함으로 평생에 비운을 겪게 된다. 일제의 악랄한 탄압과 고문에 의해 수많은 민족지

27) 국가보훈처. 1995. 독립운동 유공자 공적조서. 참조

도자들이 숨지거나 병신을 만들었다. 당시 3.1만세운동에 앞장 섰던 이화학당 류관순(16세)이 그의 고향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모진고문에 시달리다 희생된 사건은 바로 이때였다.

권희청년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대답했지만 누구의 지시나 지령은 있을수 없었다. 아마 일경들도 친구들을 심문하며 권희의 단독행동임을 알았는지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그러나 궁굼한 것은 누가 이들의 ‘독립만세계획’을 밀고(密告)했는가? 이다.

동네의 누구였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왕래도 적고 후미진 동네에 모의 장소까지 알아내 일본순사와 헌병대 1개 소대를 동원하여 체포 했는가 이다.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판결문

○ 성명- 권희(權禧)

본적.주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직업- 서당생도(유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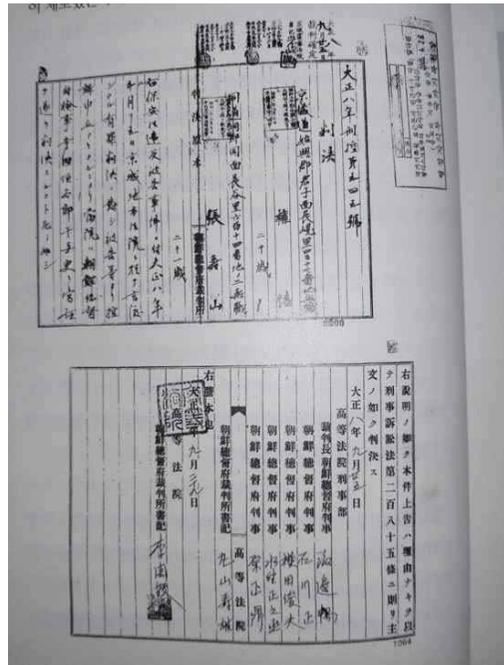
생년월일-단기 4231년 (1900년 음10월10일/양6.18일 출생)/20세

○ 성명- 장수산(張壽山)

본적.주소-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614-2

직업-농업(무종교)

생년월일-단기4230년(1899.8.7일 생(음))/21세



<권희, 장수산 재판 판결문>

상기자들에 대한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玉名友彦(옥명우연) 관여로 심리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권희(權禧)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장수산(張壽山)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 등이 제국(일본)통치의 굴레를 벗고 조선국을 수립하려는 뜻을 외친 이래로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동리에서도 역시 많은 리민들을 선동, 그 운동의 기운을 빛어내려고 하여 동년 4월 6일 전기 피고 권희 집에서 그 피고 발의 집필로 <秘密通告-비밀통고>라는 제목아래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합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고,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다음날 7일 군자면 구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구 한국기 1개씩을 휴대하고서 모이라’는 취지의 정치에 관하여 불온문구를 기재한 문서 1통을 작성한 후 리민들에게 회람시킬 목적이었다. 장수산은 같은 동리의 구장인 이종영(李鐘榮)의 집 앞에 놓아두고 많은 리민들에게 회람시켜 리민들을 선동하므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1) 당 공판정에서 말한 피고 양인이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자백
2)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종진(李鐘振)에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8년 4월 5일 3시경 발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에 근접한 장곡리 남쪽고갯길 노변에 봉투속에 한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있었다. 자기는 글을 모르므로 이종형(李鍾亨)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이라 하며 그는 ‘이것을 장곡리 장 이덕증(李德增)에게 교부하였다’ 는 취지의 공술기재.

3) 사법경찰관의 증인이덕증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8년 4월 5일 오후 6시경 이웅수(李熊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 고 하며 비밀통고문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읽어보니까 ”오는 7일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부를 토이니 구시장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모여오지 않는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 는 취지가 기재돼 있어서 자기는 후한이 두려워 곧 그 문서를 지정되어있는 이웃마을 월곶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사환을 시켜 보낸 일이 있다.“ 취지의 공술기재.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따라 신구양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공술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통독부 판사 금천광길(金川廣吉)

* 비교: 피고 2인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
대정8년7.17일 기각되고(대정8년형공제545호),
고등법원에 상고-대정8년 9,25 기각됨(대정8년 형상 제769호)

* 위 기록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재판판결문을 발취함²⁸⁾
위 기록에서 권희와 장수산은 지나친 형량에 경성복심법원에 1차 공소(형공 제545호)를 하였으나 1919년 7월 17일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두달 후 다시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형상 제769호)하였으나 1919년 9월 25일 기각되어 판결대로 권희 청년은 1년을, 장수산은 10개월을 감옥에서 꼬박 살아야 했다.

비석거리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운동옥 선생도 징역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았으나, 전혀 시위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사전 예비음모로 체포된 방년 20세의 권희 청년은 1년을 모진 고문과 독방에서 지내며 못다 핀 울분과 통한을 삭혀야 했다.

4) 일경(日警)의 요시찰(要視察)인물 고향에 서다

28)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1920년 5월 20일에 경성감옥에서 출소한 권희 청년은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각종 질환에 쇠약한 몸이 되었다. 조부와 부친은 장손의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 권씨 문중 중에 한약국을 운영하는 분에 의해 한약을 다려먹으며 침을 놓기 시작했다. 몸을 보(補)하기위해 온 집안이 나섰다. 특히 옛날부터 몸에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고단백질의 ‘곰벙이탕’이 제일이라는 한의원의 권에 따라 퇴비구덩이와 썩은 초가지붕을 찾아다니며 곰벙이 잡기에 집안 식구들이 나섰다.

2개월 먼저 출소한 친구 장길산이 찾아와 말없이 부둥켜안고 한참 울다가 돌아간 후, 매일같이 곰벙이를 잡아다 권희를 보살폈다. 이렇게 먹은 6개월이 되니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옥녀봉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그동안 큰 병원이나 한의원 가려고도 했으나 일본경찰의 요시찰 사상범으로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출소인물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오는 것을 꺼려하므로 큰 시설에는 갈 생각도 못했다. 치료할 경우, 지역 경찰에 진료내용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이었다.

간장(肝腸)이 망가지고, 신장(腎臟)과 심장(心臟)에도 이상이 생겨 허약했던 몸이 각종 민간요법으로 ‘곰벙이탕’을 먹은 후 죽을 지경의 권희 청년은 출소 1년만에야 간신이 걷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20대의 젊은 성장기였기에 회복이 빠른 편이다. 이렇게 건강한 생사람을 잡아놓고도 요시찰명단을 면사무소와 주재소에도 비치하여 각종 민원과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심지어 권씨 문중의 어린아이들이 군자소학교에 입학하는데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출소한 범죄자(?)의 가족들 모두가 감시대상으로 입학이 안 되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조카 권용재님의 인터뷰 증언) 동네의 친구들도 옛날처럼 만났다가는 보이지 않는 신고로 주재소에 불러가야 했다. 같은 문중의 일가들도 제사 때나 볼까 말까하는 감시에 시달리고 있었다.²⁹⁾

29)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1운동재판기록.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집안의 모든 곳에 가택수색이 여러 번 있었으며, 권희가 공부하던 서당도 문을 닫게 된다.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서당 선우장 훈장선생도 불려가 고문과 회유를 당했다. (손자 권창남에 의하면 어릴 때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을 때 엉덩이에 심한 흉터자국을 직접 보았고, 불 인두로 짓어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술회) 사랑방에 오던 나그네 선비들도 발길을 끊었다. 그동안 그와 만났던 모든 동네사람들이 한 번씩 주재소로 불려가곤 했다. 친구들 가족도 만찬가지였다. 일제의 억압은 우리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던 것이다.³⁰⁾

IV.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변화의 역사

1) 무단통치(헌병 경찰통치)와 식민지 토지의 수탈 (1910년대)

조선 총독부는 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 기구로서 조선 총독은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하였다. 총독은 행정·입법·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근대적 발전을 저해하였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통해 우리 민족을 무력적으로 탄압하였다. 이 시기 태형 제도가 부활되었고 범죄에 대한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완전 박탈하였다.

관리와 교사들까지도 칼을 차고 제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중추원을 총독부의 자문 기구로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위장하고 친일파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2) 3.1 운동과 기만적 문화 통치 (1920년대)

일제는 3·1 운동에서 나타난 조선 민족의 거족적 저항을 무마하고, 세계 여론이 악화되면서 식민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이간·분열책으로 민족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자치 운동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독에 현역 육, 해군 대장을 임명하던 것을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광복될 때까지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30) 권창 (87세) 의 선우장 조부에 관한 증언

경찰 제도에 있어서도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경찰 인원과 예산 등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고 많은 독립 인사들을 탄압하였다. 언론 정책으로는 조선, 동아일보 등 민족계 신문의 발행을 허용했으나 철저한 사전 검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선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지만 그것은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노예적 인간을 양성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우민화 교육, 초등 교육, 기술 교육에 치중하는 기만성을 보이게 된다.

3) 민족말살 통치와 병참기지화정책 (1930년대~)

일제는 만주 사변(1931),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하였다. 또한 세계는 경제 공황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이 증폭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대외 침략 전쟁을 주장하는 군부의 쿠데타로 군국주의 체제가 등장하였다.

민족 말살 통치의 목적은 침략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황국 신민화를 구호로 내세웠고 중·일 전쟁(193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등이 있는데 이것은 황국 신민화를 표방하여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신사 참배 강요,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 궁성 요배 등을 강요하였으며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학술·언론 단체를 해산시켰다. 심지어 친일 언론으로 변질된 조선, 동아 일보마저 폐간시켰다. 또한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고 개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제의 상급 학교 진학을 거부했으며 공직에 채용하지 않았다. 또한 우선 징용 대상이 되었고 식량 배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었다.³¹⁾

31) 국학자료원, 1999.3.1.운동 현대사 자료.2 참조/
강만길, 1998.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V. 소작인 농민운동과 낭지주 송덕비

1) 식민 강압통치와 소작인 농민운동

일본 식민시대에 지주와 소작인 간의 쟁의는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부터였다. 신안군의 암태도는 목포에서 28.5키로 거리에 있는 섬이지만 저수지가 많아 농사에 좋은 조건이 갖춰 있다. 여기 암태도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의이자, 한국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난 현장이다.

쟁의가 발발한 1920년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産米增殖)계획으로 전국 농민 80%가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암태도 역시 소수 자작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이었고, 토지는 대부분 친일파지주 문재철 소유였다.

문재철은 일제의 저미가(低米價) 정책으로 수익이 감소하자 7~8할에 이르는 소작료를 징수해 손실분을 보충하려 했다. 이에 소작농들은 서태석을 중심으로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해 소작료를 4할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다. 1923년 가을 추수를 앞두고 시작된 쟁의는 지주 측의 회유와 협박, 소작인회의 추수 거부와 소작료 불납 투쟁으로 이어지며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목포경찰서가 일본 경찰을 암태도로 보내 소작인을 탄압하고, 마침내 소작인회 간부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1924년 6월 암태도 소작인 400여 명이 목포경찰서와 법원 앞에서 구속자 석방 시위를 전개하고, 7월에는 다시 600여 명이 법원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전국에서 여론이 들끓고 노동·사회단체의 지지와 지원이 이어지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구속자 석방과 중재에 나선다. 이에 소작료를 4할로 낮추고, 소작인회에 2000원을 기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기나긴 투쟁은 소작인의 승리로 끝났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항일농민운동이자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기폭제로 평가된다.³²⁾

시흥지역의 농민들도 1920 - 1930년대는 80%가 소작농이었고, 20%정도가 자작농이이거나 일제와 영합하는 친일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현리 일대 권씨 문중도 종종 땅을 거의 빼앗기고 논밭이 지주들의 손에 있었다. 이곳 장현동, 장곡동, 능곡동 일대의 논밭 토지 17석두락(34,000평)이 지주 량정호(浪定鎬)의 소유로 되어있었다.³³⁾

권희 청년은 3년 동안 집에서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전에 읽었던 소학, 대학 책을 읽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는 힘은 회복됐지만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감시대상자로서 다른 직장이나 외지에서 일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농사일뿐이었다. 그러나 농사를 해보지 않은 권희로서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가정생활도 놓고먹을 수는 없었다.

1920년대 3.1운동이후 에는 일제는 소위 문화정책이라 말로 포장하여 조선, 동아의 민족계 언론을 허용했으나 사전검열로 통제하고, 교육정책에서도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고 학교를 세웠지만 검정교과로 식민지 노예인간을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우민화 초등교육, 기술교육에 치중하는 교육정책을 쓰고 있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권희는 캄캄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 걱정 근심으로 식음을 전폐하다 심장병을 얻어 집에 누워계실 때가 많았다. 이제 권희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이 영망이 될 것 같았다. 그는 낭(浪) 지주

32) [한국민족운동사]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농민운동 전개의 배경

지수걸, 2002. 『일제하 농민 조합 운동 연구』 역사 비평사,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 비문 참조(전남 신안군 암태면)

33) 시흥문화원 계간지 '시흥문화' 제 16호- 78쪽/ 심우일(명문고교 교감)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참조

에게 5두락(1,000평)을 얻어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다. 희는 5형제의 맏이로서 동생들과 함께 소작농으로서 대 시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농사밖에 없었다.

이때가 1923년대 ‘신안 암태도소작농민항쟁’가 일어나 해결된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항일농민운동도 독립만세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본 것으로 생각된다.

2)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소작인회의 활동

與民同樂은 더불어與, 백성民, 같을同, 즐거움樂으로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맹자(孟子)에서 유래한다. 현대적 해석으로서 ‘지역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정신이 숨어있다. 권희 청년의 정신 속에는 맹자의 글을 읽을 때, 여민동락의 어려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즐거움이 곧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뼈 속 깊이 느껴온 바였다.³⁴⁾

시흥지역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지주에게 주고나면 식량이 떨어지는 보릿고개 춘궁기가 매년 반복되는 배고픈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쩌다 흉년이 들면 초근목피로 연명을 해야 하는 이곳 시흥지역의 형편이었다.

권희 청년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어린 조카와 더불어 장현리 새재 앞 들판의 천여평 소작료는 1년에 소출의 5할이었다. 적잖은 소작료에 소작인들은 속으로 불만이었지만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추수 때 소작인들의 불만을 처음 듣고 나서 함께 고민에 빠진다.

정식으로 이곳에는 소작인회가 없었지만 소작인들 자체가 불학무식(不學無識)(?) 하여 누구하나 나설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말거나 하는 연상 어른들의 제안에 따라 소작인회가 구성되어 대표로 추대된다. 주변에서 사서삼경을 수차례 독파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옥고까지 치른 젊은 권희가 만

34) 2천500여년 전 중국 추나라의 철학자인 맹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즐거워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철학적 논제를 제기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름지기 지도자와 리더는 자신들의 독선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슨 일이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며 크게는 죽백청사(竹帛靑史)에도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장일치로 대표로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일제의 감시의 눈초리는 멈추지 않아 함부로 정치에 관한 말은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여민동락의 기본정신은 바로 이런 일제 압박을 벗어나는 독립의 뿌리로 보았다. 그리고 여민동락을 위해서는 네 가지의 씨앗을 심자고 다짐했다.

첫째, 우리마을에 향약(鄉約)정신을 심자. 유학(儒學)의 대두 율곡 이이(栗谷 李珣)선생의 향약(鄉約)정신은 유교전통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권희로서는 죽어가는 전통적인 민족사상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향약이 되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이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적 지역개발운동이며 새마을정신으로 발전한 것이다.

율곡의 4대 강목을 보면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심취한 권희는 마을마다의 이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규칙을 만들어 자력갱생의 길을 찾을 때, 민족의 독립은 필연코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³⁵⁾

둘째, 우리 마을에 ‘품앗이’정신을 심자. ‘품앗이’의 사전적 의미는 ‘힘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품’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수고’를 말한다. 옛날부터 우리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이웃이 돌아가면서 돕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품앗이’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후 우리 주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농촌의 가난함과 배고픈 소작농민의 생활 속에 품앗이가 아쉬워 가고 있었다. ‘품앗이’의 본질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기꺼이 수고(희생)를 하면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 함께 산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일제강압과 수탈 경제 상황에서 지역 간 ‘품앗이’ 정신에 입각한 상생협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³⁶⁾

35) 한국민속대관.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0.-향약 102쪽

율곡 400주년 국제학술대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향약연구논문 4인발표

36) 한국민속대관. 앞의 책 117 쪽

셋째, 우리 마을에 ‘두레’정신을 심자. 전통적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우리 선조들이 힘든 농사짓는 일을 서로 품을 나누어 가볍게 하고, 농악과 연희를 곁들임으로써 삶의 곤고함을 흥겨움으로 승화시켰던 아름다운 생활풍습이었다. 상부상조의 품앗이에서 발전한 공동노동체 조직으로, 두레가 이행하는 공동노동의 전통문화는 다 농촌에서 유래됐다

우리의 역사문화가 농경문화다. 그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두레풍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왔다. 두레문화는 민중의 사상이자 철학이다. 두레문화에는 지금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진실과 평화의 근본이 다 들어있다. 더불어 사는 대동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 상생정신을 우리들의 마을 공동체정신으로 계승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³⁷⁾

넷째, 우리마을에 ‘계(契)’정신을 심자. 이것은 오래된 우리 고유의 전통이다. 일제는 작은 금전이나 물품을 모아 차례로 공유하는 경제활동을 막았다. 계의 형태와 목적도 다양했다. 혼인준비와 상가집을 위한 혼상계, 동네 사람끼리 설 명절 때 푸집한 음식을 마련코자 들던 세찬계(歲饌契), 동년배 들끼리 드는 동갑계(同甲契)도 있었다. 또 토지를 공동 경작하는 농계(農契), 소를 공동으로 사육하는 우계(牛契)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계가 있었다.

계의 기본 정신은 상부상조(相扶相助)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가라’는 외국 속담을 우리민족은 ‘계’라는 형태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지혜였다. 우리의 핏속에는 ‘혼자’보다는 ‘함께’가, ‘나’보다는 ‘우리’가 더 진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오천년을 지켜온 우리민족이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지금 ‘계(契)’를 통한 민족자본, 금융자본이 절실하다고 보았다.³⁸⁾

필자는 이것을 향/품/두/계 정신으로 정리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37) 한국민속대사전. 민중서관. 1998. 444. 1508 쪽

38) 한국위키백과. 2015재편집. 계-한국전통 경제협동조직. 참조

에게도 유효하며 계승 발전시켜야할 선각자의 이상철학(理想哲學)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소작인모임에서 항상 강조하였겠지만, 먹기 살기 위해 쪼들리는 농촌 생활 속에서는 향·품·두·계 정신이 생활 속에 스며들기에 시기상조인 것 같았다. 뚜렷한 문헌으로 증명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일제 때는 기록을 남기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없었을 것이고, 6.25 전쟁과 3.1운동 100년이 되는 현대에서 몇몇 종종어르신들의 증언을 참고 하였을 다름이다.

3) 지주 낭정호(浪定鎬)에 대한 송덕비 건립

당시엔 일제의 앞잡이로 악덕지주들의 횡포는 일본경찰과 관리들을 등에 업고 소작인들의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받아내고 있었다. 6-7할까지 내라고 하면서 안내면 소작토지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영세민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낭정호 지주는 달랐다. 마름(지주의 현장대행자)을 통해 5할로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고 소작인회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4할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희로서는 난감했다. 낭지주를 만나 담판하겠다고 경성에 올라갔다.

올라가 만난 낭 지주는 생각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친절이 맞이한 지주는 얼마나 농사짓기에 고생하느냐고 격려하면서 농사와 지역소작인들의 형편을 묻기도 했다.

소작료를 올린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중간 마름의 임의대로 한 결정이었다.

이에 마름을 교체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소작료 징수는 소작인회에 맡기겠다고 까지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권희 외의 임원들은 푸짐한 식사대접까지 받았다.

종전대로 4할로 하되, 흉년들어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땐, 소작인회의 요청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후 약 10년 동안 4할 이상을 올리지 않았으며, 춘궁기에 종자까지 양

식으로 사용했던 소작인들의 종자용 씨앗을 내려 보내 농사를 짓도록 했다 또한 상을 당하거나 혼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백미 한 가마씩을 지원했으며, 가난한 소작인들에게는 구세주였다.

이는 권희의 역할과 소작인들의 전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른 지방의 악덕지주들은 소작인들과 쟁의가 일어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어 폭동화되어 일본경찰과 농민들과의 마찰이 독립운동의 양태로 변하는 것을 일본은 가장 꺼려하고 있었다.

이때 다른 지방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낭 지주의 소작인 배려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로서 ‘낭지주의 송덕비’ 문제가 나왔다. 권희의 제안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소작인 없었다. 막대한 비석건립비용을 소작인들 스스로 한 두락에 50전을 내기로 하고 비문(碑文)은 글씨나 읽은 권희 대표가 맡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순수한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 각출한 출연금으로 1932년 12월 12일 지주의 송덕비를 세운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단합된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힘이였다.

소작인들의 가족까지 합한다면 200여명의 가족이 시흥군 능곡동, 장현동 일대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이 낭지주 대한 고마운 표시였다.

낭 지주는 더욱 감사하다는 표시로 다음해부터는 소작료를 3할로 내려주는 특전을 받게 된다.

나중이야 알게 된 사실은 낭정호 지주는 1900년대를 전후한 인물로서 당시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해주에 있던 근대적 사립학교인 해동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 이를 바탕으로 근대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며 사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수완이 뛰어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유품상회를 경영하여 모은 재산으로 시흥군 능곡리 일대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기부와 나눔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다. 지주였지만 소작인들에게도 선덕을 베풀었던 것을 소작인들 자율적으로 송덕비를 건립한 것은 친일파 악덕 지주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정호는 미국에서 조난당한 동포예기부, 국채보상의연금기부, 수재의연금, 충무공 유적보존성금, 구제금등 냈다는 신문기사가 5번이나 실려 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많은 부자들이 비행기 헌납, 일본군후원 의연금으로는 한푼도 안낸 민족자본가로서, 우리백성 소작인들을 지켜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로서 권희와 남정호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³⁹⁾

(대한매일신보1906.5.12./대한매일신보1907.6.22/황성신문1908.5.7/
동아일보1925.8.27/동아일보1928.9.30/ 동아일보 1931.8.22/-)

남정호 송덕비 건립에 앞장서다

현재 남정호 송덕비와 문명석 자선기념비는 시흥시 능곡동 617번지 영모재 공원 악수터 옆에 서있지만, 원래 택지개발이 되기전 삼거리마을 장마당길옆에 서 있었다. 이 마을에 누대에 걸쳐 살던 필자와는 오랜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70년대 새마을농로확장을 하다. 비석이 쓸어져 무거워 세우기 어려우니 물어버리자는 동네사람들의 말에 당시 재건학교를 운영하던 교장으로서 학생들과 동네청년들을 설득하여 학교운동장(능곡 58번지)로 옮겼다가 다시 필자의집 마당끝으로 옮겼으며, 능곡택지개발에 밀려 다시 시흥문화원으로 옮겨졌다. 그 후 능곡지구개발이 완성된 후 시에 능곡동 유물 원상회복을 요청하여 현재의 능곡동 능골마을 영모재 공원 샘터 앞으로 옮겨져 ‘남정호 송덕비’와 ‘문명석, 조덕준 자선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문칠뻘한 이 비석은 지방유물로서 40여 년간 보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교육적 가치로 볼 때, 소중한 문화재인 동시에 역사적 자산에 속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 남정호 송덕비가 애국지사 권희

39) 대한매일신보1906.5.12./대한매일신보1907.6.22/ 황성신문1908.5.7
동아일보1925.8.27/아일보1928.9.30/ 동아일보 1931.8.22./ 재 인용

선생이 앞장서 소작인들에 의해 건립한 것과, 1932년 12월 8일자 매일신보를 통해, 최근에야 밝혀진 것은 너무 부끄러울 뿐이다.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시흥문화원 계간지 ‘시흥문화’ 제 16호- 78쪽/ 심우일(명문고교 교감)이 쓴 내용에서 다음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시흥군 장현리 권희(權禧)를 비롯한 38명의 소작인> 들에 의한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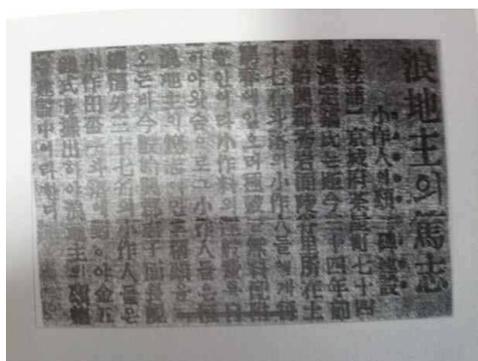
낭정호 송덕비(頌德碑) 건립에 관한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2년 12월 8일 ‘매일신보’ 에 낭정호 건립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 경성부 다옥정 74번지(지금의 서울시 중구 다동으로서 서울시청 동북쪽 일대) 에 거주하였던 낭정호씨 관련이다. 34년 전인 1898년경부터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지금의 시흥시 능곡동 및 장현동 일대)에 갖고 있던 토지 17석 두락(3만 4천평)을 소작인들에게 곡식종자를 무료로 배부하고, 소작료 운반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선행을 하였다. 이에 감격한 시흥군 장현리 권희(權禧)를 비롯한 38명의 소작인들이 소작으로 하는 논과 밭의 1두락(200평) 당 50전씩 각출하여 송덕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매일신보 1932년 12월 8일자 기사내용이다.⁴⁰⁾

기사내용 번역문

낭 지주의 독지(浪地主의 篤志)

소작인이 송덕비 건설

<(영등포) 경성부 다옥정 (茶屋町)74번지 낭정호(浪定鎬)씨는 거금 34년전부터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소재토지 칠십석두락을 소작인들에게 매년 궁춘(窮春)에 이르러 종곡(種穀)을 무료배부 할뿐 아니라, 소작료의 운반비를 자담(自擔)해야왔으므로 그



<매일신보 기사 ‘낭지주의 독지’>

40) 시흥문화(계간지).시흥문화원. 심우일(명문고교 교감)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6호 78쪽 발취

서작인들은 항상 낭지주의 독지에 만흔 칭송을 하야오든바 금반 시흥군 군
자면 장현리 권희(權禧)외 37명의 소작인들은 그 소작 일두락에 대하여 금
오십전씩 각출하야 낭지주 송덕비를 건설중이라 한다>

송덕비 비문(頌德碑 碑文) (앞면)

낭공정호 송덕비(浪公定鎬 頌德碑)

유아낭공(唯我浪公) 춘경추렴(春耕秋斂)
금세활불(今世活佛) 보급주휼(補給周恤)
소작세민(小作細民) 만구공송(輓具共頌)
영보구명(永保軀命) 재차명비(載此銘碑)



<낭정호 송덕비>

송덕비 비문(뒷면)

昭和七年 十二月 日

번역문

(앞면)

낭공정호 송덕비

오직 우리 낭공 만이 봄에 밭 갈고 가을에 거두시네
현세에 살아있는 부처님 같이 도와주시고 구제하시네
영원히 생명보존하심을 바라며 이를 비문에 새기노라

(뒷면)

소화 7년 12월 일

맺는말 (애국청년- 권희의 꿈과 좌절)

권희선생은 20대에 깊은 학문적(儒學) 바탕위에 시흥지역 만세운동과 거
국적인 3.1 독립만세운동계획이 좌절되어 모진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추슬

려 고향 시흥 장현리 안두일 마을에서 소작인 농민운동과 교육운동을 펴다가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그를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해방 직전에는 인천 주안에 살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좌익분자들의 감시논초리 때문에 고향 안두일에 도피생활을 하다 잡혀 끌려가다 탈출한 때도 있었다.

결혼 후 10년이 넘었지만 슬하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나까 형사로부터 낭심을 발로 치고 밟히는 등 모진고문으로 피 오줌,변을 보름이상이나 누웠어도 약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슬하에 혈육이 없다가 동생 권필의 장남 용훈이를 양자로 호적에 입적시켰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는 서류상의 아들이었고, 용훈이도 친부로부터 양자 애기는 꺼낼수 없는 분위기였다. 일본경찰들의 감시요시찰 인물이기 때문이었다.⁴¹⁾

3.1독립만세운동이 계획단계서 발각되어 체포된 미수사건이지만 일제는 그 배후세력을 색출하고자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고문으로도 배후를 찾지 못하고 불온 사상범으로 재판에 넘겨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서 만기출소를 한 것이다. 서울감옥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업어서 데려왔다.

최근에 조카인 권용건(80세-인천 주안거주) 님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대대로 살던집 위쪽에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를 ‘학교 밭’이라고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다고 했다. 장현지구개발전 까지 대지로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출소 후 간이 강습소를 만들어 아동들의 교육을 했던 자리로 생각된다. 학교밭 대지에 서당이 있었고, 희 선생이 출소후 건강을 찾아 강습소를 열은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해방후에는 여기에서 한문을 배우는 야학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누가 가르쳤는지는 기억에 없고, 당시 작고

41) 권희선생의 친조카 권용재(87세-장곡동 거주)님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순사들이 집안에 상주하다시피 했으며, 집안어른들을 경찰에 연행하여 집에 출입조차 막았다.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넘었는데도 입학조차 막아 늦게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집안 아이들 이 학교공부가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 술회함.

남은 칠판이 오래도록 보관되어 보았다는 증언이 또 있다.(조카 권용학, 74세)

당시 권희선생은 1920년대 중반에서 소작인들과 농사를 지으며 소작인활동을 했던 때로 볼 수 있다. 3.1운동후 일제 20년대는 소위 문화정책이라 하여 학교를 세우고 신문발행을 허용하는 등, 강압에서 완화정책을 쓰던 때다. 1932년에는 안산 샘골에 농촌아동교육을 위해 뛰어난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崔容信)이 활동하던 때다. 26세의 나이로 1935년1월 23에 영양 실조로 쓰러져 작고한 심훈의 '상록수' 소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권희 선생은 1930년대에 소작인 농민운동과 옛 서당자리 강습소(학교)에서 야학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의 나이 20-30대 후반까지 지역과 마을에서 말없는 선구자의 길을 걸었다고 본다.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 먼자 눈을 떠라. 이제 살길을 닦아보세.
조선의 부흥은 농업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

이웃 안산 샘골마을 최용신이 외친 이 고함소리가 장현 안두일, 능곡, 장곡마을로 메아리쳐 울리는 듯 하다. 당시로서는 95%가 농민이었기 “농업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양 아들 용준은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나 호적을 찾게 된다. 인천상고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든 인천세관에 근무한지 9년도 못돼 신장염으로 지병을 앓게 된다. 이에 권희선생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는 유교적 전통이 한꺼번에 무너진 상실감으로 이어져 심적 고통을 잊고자 했다. 권씨 가문과 장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계속적인 비통한 심리적 고통은 간경화를 유발 하고 말았다.

일제는 농사를 지어도 모든 곡물을 공출이란 명목으로 수탈하는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좁고 작은 마을의 농토에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희 선생이 5형제의 장남으로서 대 가족식구들의 생계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해방되기 5년 전 인천 주안에 거주지를 옮겨 생활할 때였다.

지금의 주안 4거리 건널목을 지날 때,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미군용 차량에 치어 근처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한시간만에 교통사고로 절명하고 말았다. 한 가문의 대들보이며, 민족의 거목이 청운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6.25 전쟁의 폐허복구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왜 하필 미군 추력이냐 말이다. 보험이나 보상도 없이 피해자 과실로 처리된 어긋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가 1957년 12월 24일 저녁 달려온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하게 눈을 감으니 향년 57세였다. 그 후 양 아들 용훈이는 질환으로 1978년 11월 16일 50세로 사망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지 못했다.⁴²⁾

권희선생의 묘지는 시흥시 장현동 종산에 가족장으로 안장되었으나, 2016년 6월 1일 대전현충원에 이장되었다. 59년만이다. 벌써 국가유공자묘지에 모셔져야 할 유택이, 외진 골짜기 조그만 가족묘지에 국가는 외면해 왔던 것이다.

우리 시흥지역에 잊혀져가는 권희 선생의 생애를 발굴함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하며 ‘시흥의 인물’ 선정은 물론 애국열사나 의사로서의 반열에 모셔야 할 분이다.

비 문(碑文)

권희공은 안동권씨가문의 종가집 후손이다.

경기도 군자면 장현리(안두일) 권 준영씨의 장남으로 1900년 10월 10일(양6월18일)에 출생.

유년때부터 재질이 탁월하여, 당시 족장 선우장 위행의 권유로 그의 문하생이 되어 사서삼경을 통달함은 물론 수시 선생으로부터 민족의식을 전수 받았다.

42) 권희선생의 조카 권용건(80세- 인천시 주안거주. 인터뷰 2018.7.10.) 님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부분.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래 일제치하에서 현재삼천만 민족이 가혹한 고통과 막심한 치욕을 받고 있다.“ 훈시를 들어가며 일취월장 열심히 수학 중에도 일편으론 야간을 활용하여 민족 계몽은 물론 은밀히 한일합병 실사주지에 활약하다

1919년 3월1일기미년 독립지사 민족대표 손병희선생을 위시하여 33인과 전 국민이 일시에 전국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침략자 일본제국을 타도하자는 연설을 전해 들었다.

희 공은(만 20세)우리도 대한국민이니 이제 좌시할 수만 없다고 자각하고, 군자면 장곡리 장수산, 이종영, 이종진, 이종형, 이응수 등에게 전인전파하고, 은밀히 부탁하길 4월 7일에 대한독립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겠으니 우선 전 면민에게 이 사발통문을 회람시켜 그날 면사무소 구시장으로 집합 하도록' 지시하다.

다시 전 민족에게 연락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희 공의 전원에서 야간 밀회도중 일본 헌병에게 발각되어 즉석에서 체포되었다.

일 헌병과 고등계 형사들의 혹독한 고문과 형벌로 인해 이종진이 결국 토설함으로서 희공은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수산은 동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그 외 이종영 외 2인등은 무죄 석방되었다.

형기를 마친후 희 공은 슬하에 혈육이 없어 항상 우울한 심정으로 지내다가 동생의 장남 용훈을 입양하였고 인천상고 졸업후 인천세관에 재직중에 병환으로 누워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희공은 졸지에 참담한 일로 비통해 하다 1957년 12월 24일 향년 57세 사망하다.

묘지는 시흥시 장현동 종산에 가족장으로 안장되다.⁴³⁾

43) 가족묘지에 세워졌던 권희 선생 묘지 비석문 내용

(본 기록은 3.1운동실록에 기록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과 1986년 12월 6일 대통령표창장에 의거하여 송고한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전 민족에게 알리려 함.)



<권희 선생 묘비(우)> ©심우일



<서대문형무소 수감 모습>

<참고문헌>

- 1) 《일로전쟁사진화보》, 제10권 - 사진 설명문 참조.
- 2)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21일자, 잡보(포살삼인)
- 3) 《황성신문》, 1904년 7월 1일자.
- 4) 《주한일본공사관일기》, 1904년도분 (일우문고, 《매일독립선언》번역, 62~64면).
- 5) 왕산선생년보, 《허위전집》, (아세아문화사판), 535면 참조.
- 6) 《일본외교문서》, 제 37권 제 1책, 문서번호 제680호, 1904년 7월 24일 조, (재한국(在韓國))임공사 林公使)크리 (소촌(小村))외무대신완(外務大臣宛) (전보(電報)), <배일집회해산 사정보고의건(排日 集會解散事情報告ノ件)> 601면.
- 7) 《황성신문》, 1904년 9월 23일자, 참조. 《조선일보》, 1986년 9월 29일자에서 한진수(韓鎭洙)씨 (87세, 대한노인회 마포지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전 고종사촌형 오기선(吳基善)씨와 동네 어른들로부터 3의사가 당시 용산역에 있던 일본군 보급 기지창을 폭파하려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의 철도에 폭발물을 매설, 철로를 폭파시켰다는 말을 했다. 당시 파손된 철도를 원상복구하는데 20여일 이 걸렸다고 들었다」 참조.
- 8) 《황성신문》, 1904년 9월 15일자, 잡보(雜報) 익명칭의(匿名稱義)
- 9) 《황성신문》, 1904년 9월 26일자, 잡보(雜報) 순제차하(巡祭差下)
- 10) 김윤식, 《속음청사》, (국사편찬위원회판) 하권, 1904년 12월 29일조, 121면 참조.
- 11) 《속음청사》, 하권, 1904년 12월 31일조, 121면 참조.
- 12) 대한매일신보 1906.5.12./대한매일신보1907.6.22/황성신문1908.5.7/
동아일보1925.8.27/ 동아일보1928.9.30/ 동아일보 1931.8.22/
- 1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3.1운동 재판기록
- 14) 『독립운동사』1~10(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8)
- 15) 『독립운동사자료집』1~1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8)
- 16)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 17)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 18) 『안산지역 삼일만세운동 연구보고서』(안산향토사연구소, 2008)
- 19)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78,279면
- 20)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21) 判決文(1919. 7. 17 京城覆審法院)
- 22) 判決文(1919. 9. 25 高等法院)
- 23)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78·279面
- 2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2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로고 <http://www.aks.ac.kr>
- 26) 독립운동가 [獨立運動家]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논평문

도진태
(시흥문화원 이사)

논평문

도진태¹⁾

『권희 선생님의 생애와 시흥지역 3.1만세운동』에 대한 논평

己未 獨立宣言書書(기미독립선언서)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 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철없던 시절.
국어시간에 국어선생님 회초리가 무서워 강압적으로 이글을 외우고 또 외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병희 선생님을 알고 동학을 알고 천도교의 인내천사상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글귀라는 것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가 역사관이 많이 변하고 애국정신이 많이 변해서 3.1절 하면 의례적으로 만세운동 재현, 독립선언서 낭독, 유명인사님 말씀, 그리고 만세 삼창. 이것이 지금의 3.1절 행사입니다. 또

1) 시흥문화원 이사

그것도 그럴것이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니니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창탈당하고 엄청난 일제 탄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숭고한 민족운동이고 자주독립의 애절한 몸부림이면서 우리의 주권회복에 크나큰 시작입니다.

半萬年(반 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 의 誠忠(성충)을
슴(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저는 시흥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흥에는 역사적 인물과 유명하신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풍수지리적 조건이 매우 좋아 조선조의 유명하신 분들의 묘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중의 한분 권희 선생님.
이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알았습니다.
입소문으로만 아름다움 알았던 역사적 사실을...
독립운동, 그리고 농촌계몽운동, 그분의 역사관, 농촌사랑.

정말 시흥이 자랑할만한 인물중의 한분이신걸 이제야 이글을 보고 알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유익수 선생님, 윤동욱 선생님, 윤병소 선생님 등등.

그분들의 존함은 종종 알았는데 뒤늦게 권희 선생님의 일대기를
알게 됨에 가슴 뭉클합니다.

더욱이 가까운 이웃동네 잘 아는 어르신 큰집이기에 더욱더 친밀감과 존
경심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권희 선생님의 생애와 3.1운동을 읽고 논평을 부탁받았는데 짧은 지
식에 무슨 논평을 하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움은 시흥에 권희 선생님이 계셨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글을 쓰신 김규성 교장선생님을 평소에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동네 능곡재건중학교 설립하시고 또한 교장선생님으로써 농민재건운동, 계몽활동 및 교육사업의 근대사에 시흥의 큰 지도자로써 시흥시민의 존경 받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또한 선생님을 언젠가는 우리 후학들이 선생님의 정신과 활동에 대하여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글에 평소에 존경하는 후학으로써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책 한편의 장편에 논문과 참고 문헌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한명의 시흥역사에 권희 선생님을 조명해주셔서요.
끝으로 선생님의 건강과 더 많은 후학들을 깨우쳐 주시고 시흥문화발전에 노력해 주심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흥지역 3.1 혁명 선양 사업 살펴보기

심우일
(명문고등학교 교감)

시흥지역 3.1 혁명 선양 사업 살펴보기

심우일¹⁾

■ 목차

- I. 시흥 3.1 혁명 개요 및 주요 참여자
- II. 시흥의 3.1 혁명 선양 사업 현황
- III. 시흥의 3.1 혁명 선양 사업 추진 사례
- IV. 시흥의 3.1 혁명 선양 사업 방향

I. 시흥 3.1 혁명 개요 및 주요 참여자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갖은 핍박의 기나긴 암흑 속에 살아 왔던 우리 민족은 독립국이며 자주민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국권과 민권을 찾고자 1919년에 3.1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혁명을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는데 그 아픈 상흔이 이곳 시흥 땅에도 남아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흥시 출신의 3.1혁명에 참가한 애국지사가 생명의 위협과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오로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백절불굴의 용기를 불살랐던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시 (1919년)	과거 3.1 혁명 장소 (현재 장소)	애국지사 성명 (거주지)	활동 내용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비석거리 (안산시 안산동)	윤동욱(산현동) 윤병소(능곡동)	만세 시위 활동
4월 4일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시흥시 군자동)	김천복(죽률동)	만세 시위 활동
4월 7일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시흥시 장현동)	권 희(장현동) 장수산(장곡동)	만세 시위 준비 활동

1) 명문고등학교 교감

아울러 시흥의 3.1혁명에 참여했던 주요 애국지사 5명의 행적을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 윤동욱(1891.9.1 ~ 1968.10.2)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수암면(秀岩面) 수암리(秀岩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수암면 면내 18개 동리(洞里) 주민이 3월 30일 오전 10시에 비립동(碑立洞)에 모두 모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작정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날 모이기로 한 비립동에는 2,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윤동욱은 마을 주민을 이끌고 여기에 참가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유익수(柳益秀)·윤병소(尹秉昭) 등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그 뒤를 시위군중은 만세를 고창하며 따랐다. 이들은 주재소·보통학교·향교 등을 돌며 행진을 벌였다. 윤동욱은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며 보통학교 앞을 지날 때, 순사 임건호(任健鎬)를 만나 만세시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는 불응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이해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대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 윤병소(1893 ~ 미상)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으로,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始興郡秀岩面) 일대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 해 3월 29일 이봉구(李鳳求)로부터 동군 화정리(花井里) 일대에 이튿날의 독립만세 운동 계획에 참가를 권하는 격문이 돌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3월 30일 오전 10시경, 집합 장소인 수암리(秀岩里) 비석거리(碑石洞)로 나아갔다. 여기서 그는 유익수(柳益秀)·홍순칠(洪淳七) 등과 함께 18개 동일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대대적인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마침 와리(瓦里) 사람들이 제작한 태극기를 들고 읍내로 시위 행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

였으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시위군중과 함께 공립 보통학교·경찰 주재소·면사무소를 차례로 시위 행진하고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제의 주동자 검거 때 체포되었으며, 이 해 5월 27일 경성(京城)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0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 김천복(1897.2.1 ~ 1968.8.5)

1919년 4월 4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죽률리(竹栗里)에서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모이라고 권유하여 주민 수십명을 이끌고 군자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수백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천복은 시위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4. 권희(1900.6.18 ~ 1955.12.23)

경기 시흥(始興)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현리(長峴里) 자신의 집에서 “일제의 학정에 대해 항거하기 위하여 4월 7일 군자면(君子面) 구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니 참가하라”는 비밀통고서인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인근 각 동민에게 회람시키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 장수산(1900.8.7 ~ 1981.5.15)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君子面 長谷

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권희(權熺)와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리 사람들을 계몽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19년 4월 6일 권 희의 집에서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을 제작하여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이튿날인 7일에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으로 이 비밀통고문을 각 동리의 구장(區長)에게 전달하다가 일경에 피제되었다. 그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II. 시흥의 3.1혁명 선양 사업 현황

시흥시의 3.1혁명과 주요 애국지사 5명에 관한 선양 사업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8년 7월 현재 시흥시 관내 3곳의 기념물 설치와 3.1절 기념의식, 그리고 인터넷상의 시흥시사이버역사관에 등재된 시흥의 인물 애국지사 운동옥이 전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념물

명칭	소재지	주요 내용	설립자(설립연도)
독립운동유적지	시흥시 군자동 군자초등학교내	1919년 군자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시청(1995년)
시흥시 삼일독립 운동 기념비	시흥시 군자동 군자초등학교내	1919년 군자면과 소래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시(2016년)
항일애국지사 학은 운동옥 선생 기념비	시흥시 목감동 산현리 묘역	1919년 수암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문화원(2010년)

2. 기념의식

시흥시(시장 김운식)는 2012년 제93주년 3.1절을 맞아 시민의 기금으로 세

워진 운동옥선생 기념비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3.1절 기념」 행사는 2012년 3월 1일(목) 10:00부터 산현동에 위치한 운동옥선생 기념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운동옥선생 후손, 시민, 학생, 시 간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93주년의 의미에서 기념비 주변에 93개의 태극기를 꽂았으며 운동옥선생의 약력소개, 문인협외의 헌시낭독, 헌화,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장의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시흥장수신문, 운동옥선생 기념비 앞에서 3.1절 의미를 되새기며, 2012년 3월 3일>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1일 10시부터 옛 군자면사무소 자리였던 군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식 및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흥시가 주최하고 군자동 3·1절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건립한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의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3·1절 행사에는 김운식 시흥시장, 윤태학 시흥시의장, 광복회원 및 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관시흥, 시흥문화원, 3·1절 기념행사 개최, 2016년 3월 4일>

3. 인터넷 웹사이트

시흥시사이버역사관(history.siheung.go.kr)의 시흥의 인물 메뉴에 애국지사 운동옥의 공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Ⅲ. 시흥의 3.1 혁명 선양 사업 추진 사례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시흥시 죽률동 생금어린이공원내에 애국지사 김천복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시흥시민, 사회단체, 시흥시의 수준 높은 역사의식과 상호 협력이었다. 애국지사 김천복 기념비 건립을 통한 3.1혁명 선양 사업 추진 사례의 하나로 자세한 경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선양 사업 명칭	3.1혁명 애국지사 5인 기념비 건립
제안자	광명 명문고 교감 심우일 (사)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회원 일동
제안이유	-항일독립정신 계승 -시민과 함께 나누는 나라사랑 마음을 마을에서 갖기 -후손에게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학습 장소 제공
추진 경과	<p>■ 2017년 2월-(사)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총회에서 3.1혁명 애국지사 선양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시흥시와 안산시를 나누어서 시정부에 기념비 건립 요청 계획을 세움. 시흥시 선양사업은 심우일, 강석환이 주도적으로 추진.</p> <p>■ 2017년 7월 12일 권희 선생 공적 관련 서적을 김규성에게 받음. 책 제목 : 당신은 희망입니다(김규성-시흥의 애국청년 권희(權禧), 이제야 다시 찾다)</p> <p>■ 2017년 7월 24일-권창, 권용학 안동권씨 추밀공파 오헌계 종중 임원을 능곡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나서 선양사업 협력 요청.</p> <p>■ 2017년 7월 29일-권희 선생 묘소 답사(1차와 2차 실패, 3차 성공)</p> <p>■ 2017년 7월 29일-시흥시 출신 권희 선생관련 기사를 '시흥장수신문'에 심우일이 기고함.(기사 제목-봉분 없는 독립운동가의 묘비를 보면서)</p> <p>■ 2017년 8월 7일-심우일, 강석환이 연성동장,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시흥시향토사료실, LH공사 1공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양사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p> <p>■ 2017년 8월 7일-당일 저녁에 김태경 시의원과 장경창 덕수장씨 종친회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하여 권희 선생과 장수산 선생의 선양사업에 협조를 요청함.</p> <p>■ 2017년 8월 9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직원 통화. 단기간에</p>

<p>추진 경과</p>	<p>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시흥문화원과 협의하면 좋겠음.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음.</p> <p>■ 2017년 8월 10일-시흥문화원 이병권 사무국장과 통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선양사업에 협조 요청. 시흥시향토사료실의 김치성 위원이 휴가 끝나고 오면 같이 협의하여 알려주기로 함.</p> <p>■ 2017년 8월 11일-장곡청년회 이경열 회장과 통화하여 장곡동의 장수산 선생 기념비 건립 활동에 동참을 해줄 것을 요청.</p> <p>■ 2017년 8월 13일-경기도 수원시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윤병소 선생 후손 윤재왕씨와 심우일이 만남.</p> <p>■ 2017년 8월 15일-시흥시장 김윤식, 도의원 임병택에게 시흥장수신문 권희선생 관련 기사와 함께 시흥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에 관심가져 줄 것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협조 요청을 함.</p> <p>■ 2017년 8월 17일-시흥시향토사료실 김치성 위원과 통화. 조례 등 근거가 있으면 기념비 건립 등 선양사업을 하는데 수월하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들음.</p> <p>■ 2017년 8월 21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 팀장과 통화.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p> <p>■ 2017년 8월 22일-시흥시향토사료실 김치성 위원과 통화. 8월 29일 오후 5시 30분에 협의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2차로 선양 사업 부문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함.</p> <p>■ 2017년 8월 23일-시흥시장 김윤식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난 8월 15일의 요청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라고 답변이 옴.</p> <p>■ 2017년 8월 28일-시흥 3.1혁명 애국지사 5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심우일이 ‘시흥장수신문’에 기고함.(기사 제목-거친 장작과 쓰디쓴 쓸개를 허하소서!)</p> <p>■ 2017년 8월 29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를 심우일이 방문함.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고유섭팀장, 김치성 시흥시향토사료실 위원과 4자 협의를 1시간 넘게 심도있게 진행함. 협의한 내용을 보면,</p>
--------------	--

<p>추진 경과</p>	<p>첫째 5명의 3.1혁명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찬성함. 제안해준 선양사업 내용을 수용하여 시흥시에서 주도적으로 펼쳐가겠음.</p> <p>둘째, 기념비는 출생지 마을내에 건립하고 장소는 애국지사 후손과 협의하여 선정.</p> <p>셋째, 비용은 전액 시예산으로 추진. 약 1억 5천만원 예상(1명당 3천만원).</p> <p>넷째, 기념비 건립 시기는 장현지구 공사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함.</p> <p>다섯째, 교과서 제작, 시흥시청 홈페이지 홍보 등 기타 요구사항도 시흥시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3.1혁명 애국지사 자료 발굴 및 후손과의 연락에 심우일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p> <p>마지막으로 다음주에 선양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김치성 위원이 연락을 할 것이며, 차후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시흥시장 내부결재를 얻어서 선양사업에 대한 시흥시청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함.</p> <p>■ 2017년 9월 11일-시흥시향토사료실 김치성 위원과 전화 통화. 내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 수립하였음. 구체적인 기념비 건립 계획서 작성에 따른 애국지사의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음.</p> <p>■ 2017년 9월 19일-시흥시향토사료실 김치성 위원에게 시흥 3.1혁명의 애국지사 5명에 관한 공훈록과 참고서적, 참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하여 제공함.</p> <p>■ 2017년 12월 17일-선양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3.1혁명 애국지사 5명에 관한 선양사업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p> <p>■ 2017년 12월 20일-시흥시청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전재봉으로부터 3.1혁명 애국지사 5명에 대한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답변을 받음. 답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음.</p> <p>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 시 독립유공자 다섯분에 대한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년차별 중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립 대상지 및 주변 여건을 고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8년에는 김천복</p>
--------------	--

	<p>선생님의 기념비를 죽울동 생금어린이 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운동옥 선생님, 장수산 선생님의 기념비를 물왕동과 장곡동에 각각 건립하고, 2020년에는 권희 선생님과 윤병소 선생님의 기념비를 장현지구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즉시 건립이 가능한 곳부터 조성 여건이 되는 위치순으로 단계별로 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으로 2018년에는 1개소에 대한 건립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4월 13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전재봉과 통화. 기념비 추진 과정을 들음. 김천복 선생의 따님인 김화진 전화번호를 알려줌. 후손 및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청함. ■ 2018년 6월 11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전재봉으로부터 금년도 김천복 지사 기념비 건립에 따른 비문 초안 검토 요청 전화 받음. 이메일로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보내줌. ■ 2018년 6월 12일-시흥시청 문화예술과 고유섭 팀장에게 전화하여 김천복 지사 기념비 건립에 따른 초안 검토 내용을 알려주고 수정 요청함. ■ 2018년 6월 13일-시흥시향토사료실 김치성 위원과 통화하여 김천복 지사 기념비 내용 수정에 대하여 논의함. ■ 2018년 7월 10일-시흥문화원으로부터 7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김천복 애국지사 기념비 제막식에 심우일과 (사)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회원들이 참석해달라는 공문 및 문자 메시지 받음.
--	--

IV. 시흥의 3.1 혁명 선양 사업 방향

시흥 3.1혁명 선양 사업의 방향은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길 제안한다. 우선은 선양사업을 주관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례를 제정하고 주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양사업을 기획, 연구, 홍보, 교육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교육은 초중고 청소년, 홍보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 실행하면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제안하는 시흥의 3.1혁명 선양 사업 방향이다.

구분	내 용
주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혁명 애국지사 5명을 포함한 항일독립운동 지원 시흥시 조례 제정 -시흥시청 조직에 3.1혁명 선양 사업 주관 부서 구성 -시흥시와 시민사회단체와 선양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시흥시와 시흥교육청, 각급학교와 협의체 구성 -연구와 정책 기획, 교육, 홍보 기능을 갖춘 연구소 설립 -3.1혁명 애국지사 5명의 후손 모임 조직
청소년 교육 (학교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내용 반영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역과 연계 교육활동으로 반영(자유학기제, 창체) -공모전 및 대회(소논문, 정책 제안, UCC, 글짓기, 시, 소설, 수필, 답사기, 미술 작품, 독립군가, 안내문 쓰기, 격문, 공적을 외국어로 번역, 태극기 만들기, 편지, 사진전, 연극, 플래시몹, 댄스, 골든벨 등등) -3.1혁명 내용이 포함된 인문학 교실 -교내에 3.1혁명 애국지사 관련 게시판 구성 -3.1혁명 재현 행사 -3.1혁명 방학 캠프 -3.1혁명이 포함된 입학식 구성 -3.1혁명 유적지 답사하는 체험학습 실시 -계기교육 자료 제작(3.1절, 광복절) -모범상에 김천복상, 윤병소상, 권희상, 윤동욱상, 장수산상 제정하여 표창
기념 및 홍보 (시흥시 및 사회단체 주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혁명 애국지사 5명의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 북 발간(만화/미디어/자료집)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개최시 3.1혁명을 주제로 구성 -생가터 및 묘소 입구에 안내판 또는 표지석 설치 -홍보물 제작(포스터, 브로슈어 등) -3.1혁명 애국지사 기념일/기념공원 지정 -3.1혁명 애국지사 도로명/건물명/교명 지정 -시흥시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에 애국지사 관련 게시판 구성 -전철역사에 애국지사 관련 게시판 구성 -버스내에 애국지사 관련 영상 방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흥 전입 또는 신입 공무원과 교사에게 3.1혁명 유적지 답사 연수 실시 -마을내에 기념비 건립 -시흥갯공생태공원 또는 연꽃테마파크/옥구공원 등에 3.1혁명 조형물 건립 -3.1혁명 및 애국지사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시민의 날 행사시 만세시위 퍼포먼스 실시 -시민대상에 김천복상, 윤병소상, 권희상, 운동육상, 장수산상 제정하여 표창 -계기행사 실시(3.1절, 광복절) -시흥 독립 혁명의 날 제정 -장현지구내 시흥 3.1혁명 기념관 설립 -장현지구내 시흥 3.1혁명 기념공원 설립 -3.1혁명 기념 음악회, 전시회, 예술제 개최 -3.1혁명 애국지사 후손에게 듣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3.1혁명 기념 주간 설정 -기념품 제작 배부 및 판매(뱃지, 손수건, 모자, 스카프 등등)
--	--

논평문

이재만
(시흥문화원 이사)

논평문

이재만¹⁾

3.1 만세운동 계승과 선양에 대한 소견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3·1 혁명 또는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 황제의 장례식)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 운동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수가 106 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다.²⁾

1919년 3월1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4시 경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을 밝히고 전원 연행되었다.

1) 시흥문화원 이사

2) 위키백과, 서울 육백년사

宣言書(선언서)

ㅁ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肅(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중략>

ㅁ等(오등)이 茲(자)에 奮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并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여 萬彙群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부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백세) 祖靈(조령)이 ㅁ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ㅁ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더.

公約三章(공약 3장)

一. 今日(금일) ㅁ人(오인)의 此舉(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 | 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一.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一.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해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朝鮮(조선) 建國(건국) 四千二百五十二年(사천이백오십이년) 三月(삼월) 一日(일일)

朝鮮民族代表(조선 민족 대표)

孫秉熙(손병희) 吉善宙(길선주) 李弼柱(이필주) 白龍城(백용성) 金完圭(김완규) 金秉祚(김병조) 金昌俊(김창준) 權東鎭(권동진) 權秉憲(권병덕) 羅龍煥(나용환) 羅仁協(나인협) 梁旬伯(양순백)

梁漢默(양한묵) 劉如大(유여대) 李甲成(이갑성) 李明龍(이명룡) 李昇薰(이승훈) 李鍾勳(이종훈)

李鍾一(이종일) 林禮煥(임예환) 朴準承(박준승) 朴熙道(박희도) 朴東完(박동완) 申洪植(신홍식) 申錫九(신석구) 吳世昌(오세창) 吳華英(오화영) 鄭春洙(정춘수) 崔聖模(최성모) 崔麟(최린)

韓龍雲(한용운) 洪秉箕(홍병기) 洪其兆(홍기조)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전 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대대로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아 이를 두루 밝히며, 영원한 민족의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하니, 이는 하늘의 명백한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

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로이기에 세상의 어떤 힘도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더불어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만대의 조상님들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로운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호위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입니다.

공약 삼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합시다.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합시다.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김병조 나인협 이명룡 박준승 오세창 최린 길선주 김창준 양전백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한용운 이필주 권동진 양한묵 이종훈 박동완 정춘수 홍병기
백용성

권병덕 유여대 이종일 신혼식 최성모 홍기조 김완규 나용환 이갑성 임예환
신석구

2

시흥시 출신의 3.1만세운동 주도적 참여자와 선양사업은 다음과 같다.³⁾

시흥출신의 3.1만세운동 참여자

일시 (1919 년)	과거 3.1 혁명 장소 (현재 장소)	애국지사 성명 (거주지)	활동 내용
3월 30 일	시흥군 수암면 비석거리 (안산시 안산동)	윤동욱(산현 동) 윤병소(능곡동)	만세 시위 활동(2,000명)
4월 4일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시흥시 군자동)	김천복(죽률동)	만세 시위 활동(수백명)
4월 7일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시흥시 장현동)	권 희(장현동) 장수산(장곡동)	만세 시위 준비 활동 (비밀통고문)

시흥지역의 3.1만세 운동 선양사업

구분	명칭	소재지	주요 내용	설립 또는 주관 (설립연도)
기념 물	독립운동유적지	시흥시 군자동 군자초등학교내	1919년 군자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시청 (1995년)
	시흥시 삼일독립 운동 기념비	시흥시 군자동 군자초등학교내	1919년 군자면과 소래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시(2016 년)
	항일애국지사 학 은 윤동욱 선생 기념비	시흥시 목감동 산 현리 묘역	1919년 수암면 만세 시위 활동	시흥문화원 (2010년)
기념 의식	3.1절 기념행사	군자초등학교 (옛 군자면사무소)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의식	시흥문화원, 시흥시 (2012년~)
인터 넷 웹	시흥시 사이버 역 사관 (history.siheung. go.kr)	시흥의 인물 메뉴	애국지사 윤동욱 공적소개	시흥시

3) 심우일(2018),시흥지역 3.1혁명선양사업 살펴보기

191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육군대장의 무단통치는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선 민중과 충돌하게 되고 마침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 독트린으로 조선민중은 희망을 품게 된다.

그러나 당시 조선민중에게는 3.1운동정신을 추진할 추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9월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후에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1년 대일선전포고를 하는 등 엄청난 반항을 몰고 왔다.

최남선이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첫 구절을 보면 당연하고 정의에 맞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전 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대대로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족대표의 선언으로서는 난해하지 않다.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아프고 가렵고 측은하고 애달픔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이다.

양명학의 거두 정제두가 설명한 그대로이다.

[양지(良知)는 저절로 아파하고 가려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측은해하고 애닦아 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더 넓혀서 천지를 제자리에 있게 하고 만물을 화육(花育)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의 지(知)이다. 또 그 자체에 ‘양능(良能)’을 포함하는 것이다. 측은해 할 줄 알고 그것을 넓혀 천지를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은 모두 ‘~할 줄 알고’, ~하려는’ 양능,의도라는 행을 포함한다. 지자에 良(양)자를 붙인 이유는 이처럼 양지가 단순한 인지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⁴⁾

4) 하곡집 권1, 서(書)2

다시 선언서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오늘 떨쳐 일어났습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더불어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억만대의 조상님들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로운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호위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작이 반이다. 떨쳐 일어나 독립을 얻자. 원망 대신에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추곡 정제두의 지행합일(知行合一)과 같다.

[앎과 행함은 하나같이 양지에 이르는 것이요, 양능에 이르는 것이요, 밝음에 이르는 것이요, 성실에 이르는 것이요, 박학에 이르는 것이요, 독행(성실하고 친절한 행위)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앞이나 하거나 행함이라고 하면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일이니, 진실로 아는 것이 다르게 된다.] 5)

<참고> 추곡 정제두의 6대 종손 정원하, 제자 이건승, 홍승헌 등은 신민회 회원 이시영 등 6명과 이동녕 등과 함께 1911년 만주에 신흥강습소를 조성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1919년), 신흥전문학원(1947년), 신흥초급대학(1949년), 신흥대학(1952년), 신흥종합대학교(1955년)를 거쳐 1960년에 경희대학교로 개명하였다.

4

시흥의 독립운동가 권희의 활동을 소개한 김규성 이사장님, 심우일 교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5) 하곡집 권9, 존언(存言) 중

3.1만세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향토 운동가들의 활동이 자손만대까지 공유되고 영유케 함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또 기성세대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 스마트폰, 독서량 급감, 경기 침체 등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겁지만 김 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⁶⁾를 다시 읽어 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문화의 범위 등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정신문화, 물질문화, 생활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백범 선생님은 정신문화를 지칭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여 봅니다.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중 첫 번째 공약을 그 추측위에 얹어봅니다.

“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요,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6) 백범일지, 나의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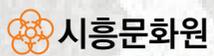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흥문화원이 마침 양명학을 중심으로 ‘철학하는 도시’를 중심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고 우리 시흥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선양도 그 기반 위에 더욱 더 힘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양명학이 실학, 개화사상과 서양철학, 70년대 고도성장기의 배경까지 두루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인 점을 감안하면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저서의 번역 소개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철학하는 도시’의 확산 방법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시흥시 평생교육원의 평생학습시스템 및 지역네트워크 참여, 시흥문화원의 상설교실 등 현재 운용되는 사회적 교육시스템 활용이 좋을 것 같고 시흥시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라 도로신설 등을 활용하여 가칭‘철학거리’지정을 받아 내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명학이 시흥에서 시작하여 강화학파를 이루고 실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여 안산-시흥-강화를 잇는 양명학벨트를 통하여 공동연구 등 협력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흥문화원

발행인 정원철 **발행일** 2018. 7. 29. ※ 비매품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

전화 031-317-0827 **팩스** 031-317-0828 www.shculture.or.kr